

그리저리求景噯고



[해제]

가사의 내용은 전라도 화순(和順)의 능주(綾州)로부터 시작하여 순천, 보성, 장흥, 화순, 동복, 창평, 담양, 남평, 광산, 장성, 고창, 영광, 나주, 함평, 무안, 해남, 강진, 흥양(고흥), 영암 등 전라도의 인접 지역을 차례대로 돌아보며 그에 따른 감흥을 읊고 있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다른 기행가사들과는 달리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상찬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산세(山勢)나 지세(地勢)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 형세를 노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는 뛰어난 풍광에 대한 감탄보다는 그 지역의 산과 땅을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땅의 기운을 받은 후손들이 어떠한 길흉(吉凶)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읊고 있다. 작품 속에서 그 지형(地形)에 대한 풍수지리적 분석이 매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것으로 보아 <그리저리 求景嘯고>의 작가의 풍수지리적 식견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사는 “綾州로달너들니胡僧山이分明하다그山차즈登山하니志杖洞이分明하드胡僧禮佛 分明하드 저그은진 우리신임 問安納拜 ㅎ는形상 조을시고 이닌興을 저山川의 發行하니 우리神임 石上의 거러안져 百八念珠 손의들고 坎中連九 宮形象 그안의 조을시고 丑寅方の 鉢리씩라 丙丁方の 長衫이오 加袈乃服 端正하다 穴下의 童子石은 合掌拜禮 더욱죇트 龍虎의 上怪峯은 次第로 들어섰다 庚辛方 獻香童은 式年마당 吹笛이라 乾亥方 蹇駟砂은 百子千孫 ㅎ는구는 丑寅方の 鉢리씩는 三代名將 조을시고 午丁方の 長衫砂은 烈女孝子 나는구는 坐向 ㅎ와보니 甲坐丙向 分明하드 得水를 어더보니 午丁得 亥破로다 穴上의 天祭峯이 오穴下의 積廩巖이라 그고되 ㅎ직ㅎ고 綾州北 十里外의 黃鶯啄木 分明하니 綠陰山이 穴上이오

[원문]

그리저리求景嘯고

綾州로 달너들니 胡僧山이 分明하다
그山차즈 登山하니 志杖洞이 分明하드
胡僧禮佛 分明하드
저그은진 우리신임 問安納拜 ㅎ는形상
조을시고 이닌興을 저山川의 發行하니
우리神임 石上의 거러안져 百八念珠 손의들고
坎中連九 宮形象 그안의 조을시고
丑寅方の 鉢리씩라 丙丁方の 長衫이오
加袈乃服 端正하다
穴下의 童子石은 合掌拜禮 더욱죇트
龍虎의 上怪峯은 次第로 들어섰다
庚辛方 獻香童은 式年마당 吹笛이라
乾亥方 蹇駟砂은 百子千孫 ㅎ는구는
丑寅方の 鉢리씩는 三代名將 조을시고
午丁方の 長衫砂은 烈女孝子 나는구는
坐向 ㅎ와보니 甲坐丙向 分明하드
得水를 어더보니 午丁得 亥破로다
穴上의 天祭峯이 오穴下의 積廩巖이라
그고되 ㅎ직ㅎ고 綾州北 十里外의
黃鶯啄木 分明하니 綠陰山이 穴上이오

楊柳客이 穴下로다 穴在羽間 第一枝라
案送南薰垵오 水破夏口로든
雙峯峙을 차즈가니 飛鷹放手 分明하다
伏雉體를 차저보니 子孫의 富名이라
五代富名 五代進士 나느구나 어늬神眼
차자불가 그질로 차자들어 行乞食留宿홀식
此寺의 二三朔留宿后의 梅花亭을 닐러가니
梅花落地 分明하다 東流水의 西見破은
當局으로 흘러난디 穴前에언馬齒體
오穴上에 三花枝를 巽辛方에 나러더난
胡蝶덜리 穴前으로 리들고 니뵈子孫
되난品은 當代富名 五代傳은 人物代代 나느구느
그고되를 흐직하고 濤巖山를 차자드니
石上에 느라드는 飛鷹形은 日才形像 일너구나
癸丑方이 飛雉形은 乾亥方으로 反走한에
裁穴을 노와보니 極難이라 밤철을 불근쥐고
飛鷹形을 차즈드니 나을보고 놀덧흔든
엄검섭적 들어가서 一二四日얼 裁穴하니
綾州의 第一地라 午丁方의 華長峰니
山川으로 應對하네
庚方 富興巖은살촉갓치 느라든든
羽間으로 裁穴노면 穴形 조타마는
華長峰이 大凶이라 차서보니 空匣이라
穴在瓜間 兩穴이라 案山 불작시면
反走砂로 伏雉로든 用山后 되느品은
二代名富이오 二代忠臣과 二代名將이오 十二代巨族이라
되강만 구경하고 順天으로 너머가니
五虎臥嶺 구버보니 千里行龍 奇妙하다
龍허리에 穴를미자 山川이 輻湊하니
났낫치 眞穴이라 五代三相 흐리로다
北十里 得鼓形은 舞童案을 하야구나
그안애 金盤形은 玉盃案이 더욱貴타
躍馬赴敵 脫鞍形은 水驛의 생겨구나
西十里 赤龍戲珠 七珠案이 分明하다
老鶴展羽 臥牛形은 ∞城안애 숨어쏘든
鳳鳥抱卵 半月形은 三台峯下 良脉이라
馬耳左邊 地畫處애 祥雲三穴 分明우느
一穴은 居頭하고 二穴은 居尾하니

七代將相 五代節度 水口堅固 타시로다
累代食祿 富貴穴은 頭穴이 第一이라
數月을 逗留하고 寶城으로 作路하니
山陽東 五里許애 半月形이 잇썌수나
三台案 倉庫峯은 陽宅으로 싱겨수나
南으로 내려가니 渴龍이 물마시고
江邊 大路上의 无端이 업져논디
난디업은 사슴두리 花福龍을 보리보고
石角을 의지하야 어언이 안자시니
이穴을 찾자하면 金山의 姤卦로다
主人峯을 차자보니 五姓大發 ㅎ리로다
逆水開局 平坦흔디 文明之穴 ㅎ고만타
主人星體 바리보니 任氏山이 되리로다
大川邊 伏虎形은 千年香火 ㅎ리로드
數十年 지니가면 寡母一代 나것구나
西으로 저를너머 長興地境 다다르니
龍山下上 帝奉詔 拜禮반신 닌것수나
六卿이 案이되고 三台는 西으잇드
雙鬼樞星 세운고디 穴在上聚 하였구나
六朝臣下 옹위하니 上大之地 되오리라
이主人을 차자보니 尹鄭의 괴을이라
이后 千年만애 偶然이 쓸거시니
날임이 쥬신지라 그뉘라셔 마그리오
거기셔 不遠間의 三台穴이 쏘잇구느
우의는 任君되고 아라는 臣下되니
於焉間 그새이에 君臣穴이 싱겨수느
長鼓山 十里許애 將軍形體 보기조타
重重龍虎 回抱하야 穴아닌 源泉잇썌
三重案의 斬頭石 穴在鉗裏 ㅎ엇구느
庚兌龍 乾亥脉의 亥坐로 乙破로드
東山の 胡馬形은 玉女洗衣 쏘잇구느
적진흔디 어두穴이 一峯間의 숨어구느
武科三公 날거시오 百世富豪 하리로다
南行判書 一道監司 長派의 나것구느
東十里 石峯下의 武公端坐 자세보소
庚兌砂가 起伏하야 二峰案이 되여구느
似石非土 五六尺의 白黃石 놀거시니
이穴차자 쓰거드면 그발수 일치말소

속의盤石 잇실씨니 空空之聲 느리로다
이穴主人 姓名보니 水木山이 坎卦로득
그건네 伏虎形은 天基가 싱겨구느
이后 聖賢나면 그마을이 半朝로득
天冠山 金體보니 前後左右 穴도만타
乾亥脉 子入首와 石中土穴 그中났득
馬鳴洞 드러가니 土山石穴 더욱좃타
王字脉 八節下의 언연이 싱겨구느
돌를열고 거드면 三色靑土 나것구느
木山困卦 슬퍼보니 火姓의 임지로득
三年만애 鰥寡나서 淫亂이 비록하나
이희을 지닌가면 文武兼全 하리로득
變티못홀 이한물리 沐浴水 타시로득
迦智山將 庫大坐大 窩間의 잇셔구느
海水가 廟堂處라 金木山 旣濟卦라
數多흔 穴일흠 을어이득 말홀손야
그리저리 求景호고 綾州로 作路흔니
南山의 蒼龍出洞 雲烟峯이 案되로득
白雲 在左호고 車洞 不遠호다
兌穴의 作庚호야 四龍三虎 되야스니
兩水合流 호는水口 華表捍門 이거시라
瑞雲은 城門되고 巽辛은 文筆體라
巳丙의 重重梅花 玄武의 御屏잇득
帝闕 不遠하야 穴在頂中 호엇구느
五六尺를 파고쓰면 武世近世 代代로득
主人峰이 木星이라 木火星이 完然호득
南으로 二十里애 盤龍戲珠 보기좃득
活龍이 越伏하야 數百節이 되여구느
入首의 特立華蓋 重重龍虎 回抱호고
八百烟花 粉黛象의 回龍顧祖 案이되니
百子千孫 文武科은 千萬年를 富貴호리
巽山下 生龍숫티 伏虎形이 싱겨구느
生龍案의 回頭中의 一江波가 잇시니
茂林애 蒼龍나고 山林애 虎頭잇득
癸方水口 緊固호니 武冠天下 하리로득
主人를 보자호면 水土姓이 發福호리
東으로 도라오니 錦帳의갈 꿈이잇득
帳內帳外 數節峯이 忽然落於 平地로득

左畔이 머리씨고 變窩格이 되여시니
穴머리 두어미의 土星이 護衛하야
靑龍이 심이늘어 三重案이 노파시며
外巨石이 倏倏起走하야 穴在平頭 高曠處라
主人姓名 아자하면 金山困卦 자세보소
東편의 飛禽落地 啄粟案이 되여구느
壬坎龍 壬乾入 首雲山이 疊疊하야
曠野中 一塊方을 그뉘라셔 아라볼고
靈泉이 우애잇싸 晝夜로 흘러간니
万世下 足珍珠은 丑下의 고리잇고
門中의 文彩잇드 竹林洞 七里許의
蜈蚣形이 奇妙하드
東南海蝦 弄珠은 三姓天基 되여구느
玉女騰空 臥牛形은 不遠間의 잇셔구느
그박고 六十四穴 龍穴圖를 차자보소
和順地境 너머서니 九十穴이 싱겨구느
邑內前面 玉女形은 乾亥脉이 天基로드
無等山西 南麓下大 將大坐拔 劔形은
旗鼓兵器 迎送하니 文千武万 나리로드
東十里 玉女舞袖 橫琴案이 되엿구느
十九人 近侍되고 五代南行 날리로드
放鷹形과 伏虎形은 丁男子孫 發福하리
西北의 臥牛形은 積草案이 되엿구느
早年の 登科하야 一代丞相 하오리르
西南의 盤龍弄珠 三峯案이 多情하드
兩水 合流하야 自東流南 하난구느
七代文科 三代南行 水土山이 咸卦로드
東南의 大海잇고 서飛龍形 싱겨잇드
文章貴人 날겨시오 爵祿功勳 無窮하드
東南의 龍蛇聚會 水土山이 坎卦로드
主人峰 차자보니 吳姜姓이 天基로드
東南의 飛鳳歸巢 竹田案이 되엿구느
仙人乘鶴 下田形은 鼓瑟峯이 天基로드
山陽의 닷난사람 木人姓이 主人이라
西五里 黃龍負舟 大江案이 丁寧하드
主山 三節下의 龍虎兩峯 卓立하니
良峯이 圓厚하고 巽辛이 相對하니
穴이노파 嫌이되니 兩水流南 分明하드

文科才士 마니나고 血食一人 나리로득
西南의 모진범이 사심을 아퍼두고
저흔자 질기면서 才操를 자랑흔득
白花南行 三人나고 連代近身 나것구누
南興洞 十里許의 鳳흔나 잇섯구누
渴龍이 水을보고 大江으로 내려온득
金山下北 五里許의 覆舟形 쏘잇구누
主人를 초즈보니 木山艮卦 알아보소
西南의 잉우식야 鸚鵡逢虫 貴하도득
七代文科 間間나고 五代公侯 ㅎ리로득
庚酉坐의 艮水歸乙 自東流南 ㅎ난구누
그건네 乙辰脉의 万世求久 ㅎ것구누
만일애 그르치면 賊臣兄弟 나리로득
主人星体 짐작하니 火姓의 ㅅ이로득
無等山 下明處로득 皇帝奉 詔形이ㄹ
巽有 天路山이오 辛有 地神峯이ㄹ
案山이 五疊이오 丁方의 皇旗라
立臥 亥巳ㅎ고 得破 甲子辰이ㄹ
穴在書 案흔니 宰相群臣 씨날소녀
穴主∞ 孔奉흔니 血食不 絶ㅎ리ㄹ
和順接界福川之地 달너드니 雲中半月 分明ㅎ다
日∞ 蒼山遠의 碧岵烟霞深이라 村村大吠聲은 龍王之舉動이라
山鳥은 喧喧하니 魚鱉이 相躍이ㄹ
穴在 龍角애 무슨神眼 초자보라
穴上의 長屏岩이오 穴下애 雙笛砂라
乾巽 臥尸ㅎ면 八將八相 七王后라
穴主林 金朴이라 水破 丑未로득
桃花洞의 방를지닝고 昌平地境 너머서서
邑基를 살펴보니 터이비록 적어시나
山川이 明朗ㅎ니 多出人才 ㅎ리로다
鳴陽南 五里許의 玉女登空 조을씨고
그이네 風吹羅 帶中間의 穴이로득
잠산時애 發福ㅎ야 오늑가과 어렵소득
그뻑과 잇난穴은 넛넛시 欠이잇득
此十里 늘근龍은 無欠大地 되엇구누
定陽洞의 將軍出洞 佩劍形 더우죇ㄹ
渴흔龍이 물마시고 거음은 지촉ㅎ야
머리를 ㅅ의박고 大江가애 내려온득

木姓밋티 天基보소 百子千孫 富貴허리
三代名監 날거시오 文科不絶 허리로드
歎嘆 不已허고 潭陽으로 作路허니
九岩上 大路邊애 穴찾기가 어려구나
乾亥 龍數節下 甲卯入首 艮作穴의
微窩斜斜 되여시니 어닌明眼 알아불고
만일초조 쓰거드면 七代文科 富貴로드
星山下 十二峯의 八大穴이 못쳐구느
둘은 陽宅이오 여섯선 陰宅이라
水口를 조새보면 그안에 무친穴은
알그사 알재만른 裁穴허고 쉬을손야
長坡山 올라가니 回龍形勢 雄壯허드
그脉의 무친穴리 드샷시 잇것구느
金釵掛壁 蜈蚣形과 鷲巢玉燈 渴馬形은
穴星은 端正허느 不貧不富 쏘이로드
南으로 내려가니 구름속애 못친달이
五雲이 玲瓏하고 光彩가 찰난허드
辛兌龍庚 一節의 庚入首坤 坐艮向
艮壬水가 歸震허고 城門 亥애잇고
朱雀은 在丁허고 丙午峯은 高秀허니
三峰下 大道上의 完然穴이 누어구느
百子千孫 허려니와 富貴宰相 不絶허리
東十里 내려오니 金龜形이 쏘잇구느
前後애 貴人잇고 主案이 有情허드
人山은 巽애잇고 蜂峯은 左의잇드
人字路上 七峰下의 艮行三節 壬氣穴은
壬向이 相對허고 甲乙이 歸未허니
前山이 羅列허고 三陽이 俱照헌디
丙丁龍이 巽坐乾向 坤兌水가 歸甲허니
三聖五賢 날거시오 出身三台 허리로드
主人를 보려허니 말허고 어렵쏘드
居之姓貫 짐작하니 海島之人 되리로드
그外애 남은穴은 어이드 말할소야
그리저리 求景허고 南平으로 녀머오니
乃谷南의 半月形은 三台案이 分明허드
明山이 來朝허니 天基가 되여쏘드
西山의 臥牛下田 靑艸가 업난고디
무여슬 보라허고 밧가의 누엿느고

그우고 擲地金釵 玉女보고 반만웃내
二馬山の 蜈蚣形은 當代速發 쑤니로다
永平 十五里의 黃蛇出草 수머쑤는
田北의 蒼龍出洞 陽宅으로 내려왔드
東野의 將軍出洞 虎距石下 잇쑤구는
西北의 渴龍形은 물을차자 오는구는
大山下 丑艮脈은 兒龍弄珠 싱겨구는
文科七代 날겨시오 貴無敵世 홀리로드
主人峰 차자보니 木火姓의 임조로드
穴在圓暈 斜鉗잇되 그뉘라서 차자보리
그외의 잇난穴은 不過四代 ㅎ리로드
竹杖麻鞋 밧분거름 光山の 올라오니
玉女峰下 老人頂穴 子坐午向 岩石上의 細路를 엮픽놋코 南의로 계슈밧드
西十里 瑟山下의 金鰲上水 싱겨구는
뒤의난 石峯잇고 암패는 乾泉잇드
用之后 十八年の 百子千孫 하리로드
西南의 玉女散 花群仙를 案을삼고
金비니 손의잡고 空然이 춤을춘드
이山主人 보려ㅎ니 木山이 離卦로드
東五里 飛龍形은 三池案이 多情ㅎ드
東의는 龍이잇고 北의는 馬리잇드
이穴차자 보겨드면 無價之寶 되오리라
南三의 君臣奉朝 名賢君子 나것구는
前後左右 둘러보니 썩기썩기 金이로다
文科七代 ㅎ은후애 血食之人 나것구는
南三回 龍隱山 土山鼎卦 보와셔라
四尺下 白土色의 식암이 잇슬터니
돌를노코 쓰거드면 七百文科 百子千孫
九代進士 南行贈職 말노는 다뭇하리
龍虎가 重疊ㅎ니 卯水가 歸丁이라
東의잇난 仙女舞袖 朝天橫笛 案을삼어
重重立石 穴唇되니 大小科慶 ㅎ니느리
이山主人 그뉘런고 木山이 小畜卦라
東十里 行舟形은 雙檣로 案을하니
別노 조은거시 不貧不富 하리로드
西北의 龍蛇聚會 穴在凹腦 ㅎ여구는
大江으로 破을하니 判書二代 나겨구는
그안의 回龍顧祖 大野中の 獨山이오

龍虎로 回抱하고 左右蟬翼 싱겨구는
 文武三代 ㅎ려이와 富貴無雙 ㅎ리로다
 景陽八里 圓峰下의 암鳳이 알을품고
 덕숨플 이지ㅎ야 말업시 슈머구는
 이거슬 차자보니 陽宅이 싱겨구는
 西大江北 邊鎗山北의 金鼈下水 불작시면
 文科一人 贈職三代 螟蛉繼祀 ㅎ은后스
 百子千孫 富貴하고 文人才士 ㄴ리로다
 이主人 姓名보니 水土山이 隨卦로다
 北으로 올라가니 渴馬 飲水하고
 큰질을 압쳐놋코 안장으로 몸을쓰고
 어연이 누워시니 알라볼리 뇌잇실고
 龍頭의난 大路잇고 虎頭의난 심이로득
 三代后의 節度使와 子孫千億 되오리라
 主人를 아자ㅎ면 火山의旅卦 보와셔라
 穴在中正 自當處라 不偏不倚 ㅎ엇도득
 丑入首良 坐原의 庚酉水가 歸丁ㅎ되
 西으로 도라보니 老翁이 낙기너고
 東南大 野中의 三魚品字 ㄷ난구는
 用之九年 初發하야 傳之無窮 ㅎ오리라
 西山의 안진玉女 머리푸려 몸의감고
 치미버서 山의걸고 比히를 갈로잡고
 시히물을 의지하야 ㅎ용업시 샛로라니
 南山의 잇는仙人 玉女보고 춤을춘득
 穴深五尺 파거드면 佛石一雙 잇겨구는
 傷티말고 쓰거드면 間間勇士 나리로득
 三角山 西北麓의 兩大穴이 쏘잇구는
 ㅎ는는 回龍顧祖오 ㅎ나는 兒犢失母라
 죽어가난 사롬잇셔 어렵게 술여니면
 이穴차차 즐거시니 積德修善 ㅎ여셔라
 三代贈職 몬저는고 文武兼全 ㅎ이로득
 南岳의 躍馬戲鞞 仙賓案이 싱겨구는
 重重龍虎 回抱하니 丁得戌破 分明ㅎ득
 一品富貴 累代進士 百子千孫 ㅎ겨구는
 居地姓名 아자ㅎ면 火山謙卦 解得ㅎ소
 東十里 文章揮筆 玉硯案의 大川邊의
 天基ㅎ는 싱거스니 富貴兼全 ㅎ오리ㄴ
 光山몹을 츠자드니 飛鳳抱卵 分明ㅎ득

穴在 羽間이라 丑寅方의 梧桐峯은
得水은 辰得未破 戌坐辰向 分明하든
六代富名 不絶이라 穴主은 韓金이라
南十里 內애 平沙落雁 分明하든
平沙落雁 차자드니 洞庭湖上 蘆花로든
沙平언들 第一地은 白鷗失友 虛送龍이라
蘆花山 峰秀하니 沙平이 入方이로든
丑坐午向 坐向쫓코 辰得未破 더욱쫓든
二代 將相이오 ∞ 迹防 禦使로든
十二代 富名이니 李昌福이 主一地로
南麓 十五里애 金甓沒泥 거긔잇든
大路 之上이오 存岩 之下라
水口애 三峰은 承相衛遺 기로외잇고
從其師言 坐向로든
靑龍 三節峯은 三代承相 갈바업든
無等山 올라서서 前後左右 살펴보니
西으로 내려와서 金堂山이 싱겨구나
木星下 大將形体 穴在鉗裡 하얏도든
穴前의 올라서서 四方을 둘러보니
旗鼓兵帳 버러난듯 幙頭帽笏 分明하든
丙丁巽辛 羅立하고 壬氣가亥로오니
三月內애 速發하야 天下名將 라리로다
主人峰을 자식보니 水木山이 坎卦로든
壬坎乾亥 十節下의 陰陽宅이 無數하든
水火姓이 大發后의 土姓이 主人되리
甲卯脈 八節下의 狗頭山을 뒤의놋코
범바우? 엮퍼서며 언언이 안자시니
平坦의 甓친穴은 金水姓이 主人이로
그우히로 올라오니 大小穴이 許多하든
白馬江 건너서니 陽宅이 쏘잇구느
큰들 압퍼놋코 太極이 端正하니
名賢才士 間間나고 富貴累代 하것구느
거음을 지촉하야 魚頭山 올라보니
寅艮으로 過峽하고 丑寅으로 起頭하니
平地陰砂 結咽處의 마디마디 奇妙하든
龍未起處 先落하야 武公端坐 싱겨구느
丙午로 落脉하야 丁一節庚 二節의
土星太極 圓厚하야 卑濕處의 穴잇스니

毬簷이 分明하고 合襟이 端妙하도
一帶水가 朝堂하니 速發長遠 ㅎ것구노
이主人 보러하니 木火山이 離卦로도
上頂애 올라가니 縣針穴이 되엿구노
穴后애 石角잇서 危急脊薄 ㅎ야시니
速發은 비록하나 不過三代 ㅎ리로도
龍穴坐를 살펴보니 亥坐의 巽破로도
主人形勢 자세보니 水金山이 鼎卦로도
乙辰脉 回龍한디 穴한느 싱겨구노
子孫은 만찬하나 香火不絶 ㅎ리로다
窩窟속의 잇는穴를 그니라셔 아라보리
南麓 구버보니 三四穴이 쏘잇구노
子孫은 만타한느 貴라할것 업셔쏘다
初節이 未盡하야 다사꿈 올라가니
쓰기사 쓰재만은 成敗多端 ㅎ리로다
飛鳳形과 玉女形은 不遠地의 숨어구노
北으로 올라가니 陰陽宅이 無數하도
보되山大 峙南麓의 陽宅이 쏘잇구나
內外砂角 回抱한디 穴下의 源泉물이
坤艮으로 돌너가니 水口藏鎖 堅密하니
中國丞相 하온后의 億万子孫 不絶ㅎ리
千金砂의 질이나면 虛名만 傳흘리라
金釵掛壁 玉梳案은 北榆谷의 잇나니라
獨傳三代 ㅎ온后의 內外子孫이 蕃盛하야
百子千孫 하여이와 나르권세 잡을리르
이主人을 자세보니 火姓이 完然하도
大峙上 大軍形은 흠업시 大地로도
山勢난 重重하고 軍士큰 세세서니
太極애 突이잇고 그아리 窟로되니
坐向을 乙辰巽 보려하면 巳同宮이라
文武大將 數百人를 말하여 무엇ㅎ리
그리저리 두류하야 長城地境 너머서니
海水鰲山 이겨시르 山川이 會朝한디
明朗한 陰陽宅이 寸步間애 하고만도
半登山 大幹脉이 山水配合 하엿구나
南으로 二十里애 龍已聚會 天基로도
東으로 보러보니 寶劍出匣 싱겨구노
鳳山 一枝脉이 逆水로 도라셔니

子孫의 文科는 代代마닥 不絶호리
이山主人 올라거든 土山艮卦 자세보소
南十里 金釵形은 龍虎가 回抱호고
入首上의 누는로리 언연이 雄壯호드
文科一人 清白三人 富貴도 長遠호다
玄武가 特立호되 三水가 合流하며
山水精神 살펴보니 東으로 오논물리
西南으로 흘러가니 아라보고 슈우리라
자바上의 올라보니 나논龍이 구음턱고
行脉十節 丙丁龍의 龍虎업시 独行호야
스치다가 다시느셔 窩鉗으로 開口호니
案山의 倉庫峰과 큰질박고 明堂보소
穴深五尺 파거드면 赤白黃土 날거시니
三世代 지닌후애 富貴兼全 호오리라
이主人 차자보니 火木山이 離卦로드
그안의 누운龍이 靑雲를 자부타고
갈고시 업는양은 구음속의 穴이잇드
玉女峰下 구버보니 仙人이 춤을춘드
五代進士 할거시오 一代尙書 나리로드
主人姓名 아자호면 木山晋卦 자세보소
台峰下 업진범이 眠犬案을 호고잇다
明堂암페 물inna니 天基도 쏘잇구나
巽龍下의 龍잇느니 如意珠를 다토난드
文武兼全 호난中의 位至二品 되오리라
岐岩下의 窟이잇셔 將軍차자 7년구느
문저는 가난호고 勇士一人 날거시오
칼를차자 호거드면 將軍말슬 차자보소
白岩은 水口되고 저부峙는 案이로다
그아리 天基나면 귀히기는 돌도업드
蘆峯下 廣大岩의 必씩난저 玉女야
빅랑은 아니싸고 配夫문저 찬난구나
이穴을 어드쓰면 美色滿朝 호리로드
南川下 午丁脉의 집촌논 저鳳凰은
덕열의 입의물고 梧桐식지 촌논구느
水口得破 시오르니 艮方水가 乙로고니
文科三代 連出호고 翰林清職 느리로드
이鳳를 볼나거든 堂洞을 무려보소
珍原南 十五里의 구음속의 못친달리

陽宅이 싱겨스니 水金星이 發興하니
良兌金星 數三節의 陽宅이나 쏘잇구는
明堂이 廣闊하야 大江이 들어시니
百子千孫 大富貴은 몰홀슈가 다엮쏘든
主人峯을 슬퍼보니 三姓大發 ㅎ리로든
代代 進士나고 南行벼살 ㅎ이나리
水姓과 火姓人은 初發子孫 비록하니
二百年 內外間의 無后가 ㅎ니되리
辰氣늘 만니타면 庶孫이 蕃盛하니
그어느마 이터氣運 與天地로 同老하니
狗腎峙 過峽하고 雙鬼樞星 노은后의
師丈峯 뒤의두고 글익는져 仙人의
大學里을 엮패노매 案쌍을 노피닛코
엮슬端坐 하엿시니 穴在乳中 分明하니
大小科 ㅎ니나고 文章才士 나리로든
거기셔 ㅼ리보니 三巽龍이 싱겨구는
丙午坤 七峯下의 열두미두 巽氣로든
玉女峯下 脉이나니 牛頭岩이 거기로든
甲卯로 三四미의 乙辰으로 開帳하니
帳中貴人 이거시ㄹ 어이든 몰홀소나
거기셔 結咽하고 甲乙로 내려온니
圭下 三峯노니 太極形体 더욱죇든
窩中애 ㅎ氣運이 石槨이 나갓구는
本身의 靑龍싱겨 ㅼ슈을 하고셔나
案山의 天門이야 질마치늘 너머잇든
明堂은 聚束하고 水口捍門 三匝이ㄹ
四山이 拱朝하고 큰늑물이 둘러시니
石土相雜 숨은穴이 玉女ㄹ 적실하든
天藏地秘 ㅎ온中の 鬼神이 지켜잇든
七大翰林 一代承相 五大王妃 나갓구는
百子千孫 億萬年の 宗廟配享 하시리라
主人峰이 木星이라 水火姓이 어드리라
中巽龍 石中穴은 才華는 엮셔시나
穴星이 堅固하고 主案이 端正하니
富貴는 엮겨니와 百子千孫 ㅎ리로든
이主人늘 살퍼보니 火姓이 定然하니
小巽龍 건너가니 奇奇妙妙 더욱죇든
來八去八 騎龍우의 火星이 圓厚하든

錦繡屏帳 돌너시니 富貴無雙 흐리로득
 만일의 어더드면 万世榮華 하오리라
 이山主人 살퍼보니 九月山의 子孫이라
 初發后의 八兄弟가 同榜及第 흐리로득
 水口로 내려오니 龍頭上의 穴이로득
 大窩中의 穴이잇서 남모르겨 숨어구느
 富貴도 마씨이와 數百代늘 長久하리
 그우기 올라가니 흰鶴이 날기피고
 靑田의 홀로안져 神仙才操 찾난구느
 万山이 峻高하니 石中土穴 分明하다
 盤石洞 들러가니 자난범이 쏘잇구느
 盤石으로 몸을싸니 以待后人 하리로득
 內外孫이 俱發하야 千年香火 하리로득
 鴨[∞]洞 逆水上의 上下穴이 多情하다
 질미지 올라서니 風吹羅帶 臥牛形은
 미디미디 屈曲하야 一峯間의 싱겨구느
 그러나 누운소난 木卜姓이 초지하리
 白岩으로 올라가니 乾亥入首 갈바우
 삼峯으로 흥기서서 나를보고 반기난듯
 낫낫치 몰 초하니 八大穴이 거기있다
 乾陽里로 너머가니 梧桐枝의 우는鳳이
 逆水로 案을삼고 三箇바우 압퍼눓코
 丹田늘 의지하야 무어슬 찾는구느
 主人峰를 仔細보니 火姓의 物件이라
 그리로 내려가니 多小穴이 無數하다
 山水 配合處라 陰陽宅이 업슬소야
 宿鳥投林 ㅎ난고되 猛虎出林 ㅎ난구느
 鵲洞은 압퍼잇고 괴바우난 水口로득
 이穴차차 쓰거드면 大富文科 累代하리
 居地姓貫 보려하니 黃州人의 ㅅ이로득
 白岩山 前後左右 片片金이 뉘여쏘득
 穴星을 바리보고 五福洞 들러가니
 丁未로 逆頭하니 賤人爲貴 하것구느
 坎癸方의 두즐물의 ㅅ회사히 소스나니
 淫行이 間間나되 大小科慶 連綿하리
 一目一脚 子孫나면 名傳千秋 흐리로득
 主人峰이 金姤卦^ㄹ 幸州人의 ㅅ이로다
 珍原山 前後左右 十六穴이 숨어구나

허다한 脉氣穴을 낫낫시 몰홀소야
西으로 내려오니 玉女端坐 보기좃타
陰陽宅이 함기느니 累代近臣 날거시오
千峯大江 둘러시니 血食君子 나리로득
그우기 仙人舞袖 二代尙書 나거구느
蒼龍出雲 雌鳳形은 位至三品 하어서라
鰲山四面 다가보니 우리나라 洛陽이라
山川이 秀麗하니 名勝之地 되어서라
穴흔나을 어더시면 그뻗기 十二穴은
不遠間의 싱겨시니 절로득 츠지홀리
五六年을 山의로라 이리저리 득니다가
이싸山水 求景하니 마음이 울울하득
陰宅이야 만견만는 陽宅이스 흔홀소야
栢山半登 兩大脉은 陽宅이 더욱만득
늑나히 五十이라 보던중 第一이라
운슈가 머러시면 이런山水 바힐쇼야
어외 늑일이야 득뭇될 일이로득
올우치을 求景하고 高敞으로 너머가니
多小間의 陰陽宅이 逆水라 奇妙하득
龍聚八角 放馬形은 欠업시 싱겨구느
馬形은 보기쉬나 龍으로난 여려와ㄹ
半月形과 伏虎形은 長城地境 不遠하득
그을도 적어기와 山水도 적어서ㄹ
그질로 芑로나려 茂長으로 作路하니
長砂山 一枝脉은 可觀之物 만하고나
將相脉이 업서시니 파벽하ㄹ 여려와ㄹ
多小間의 잇난거시 保子孫 而已로득
禪雲山 上上頂의 穴한나 싱겨시니
二代文科 하려니와 三代가ㄹ 어렵도득
東湖邊 丑艮脉의 고기잡난 魚翁덜라
仙童의 로릭듯고 고기낙기 이저쏘다
여기을 차자쓰면 万世榮華 하련마난
모릭가의 무쳐시니 俗眼으로 어렵도득
芑로나려 올씨음애 질가의 잇난거시
龍안이요 범안이느 저우슬만 하거구나
亥三節 乾入首의 竹師洞村 前이라
자셔가려 쓰거드면 百子千孫 ㅎ리로득
허히歎息 한后의 靈光地境 너머서니

北十里 兩水間의 여섯龍이 닷투난디
如意珠가 서이되니 穴창기가 어여워
龍長 穴拙하야 合襟處의 鉗이난니
平地陰砂 回抱하니 어니明眼 아라보리
이山主人 그뉘인고 水火姓이 大發하리
邑內의 드러와서 左右늘 살펴보니
東西南北 四方中의 西南山水 더욱쫓듯
西五里 花蝶尋香 當代 速發하야
文武科도 만커니와 代代豪富 ㅎ리로
丑兌木星 正土穴의 庚酉水가 東의가니
춧기도 쉬겨니와 아리보리 뉘잇실고
北二十里 大過峽의 雌雄三穴 더욱쫓듯
紫氣木星 三節下의 平地結咽 자조하니
한가지는 西의가서 龍已聚會 되엿구나
穴后의 天財土星 泰山이 싱겨잇
四代承相 七代王妃 百子千孫 文武科늘
代代로 흘겨시니 저마도 어들손야
主人峰을 자세보니 木土山의 革卦로
東岑峙늘 너머가니 臥牛形 天基로
一隊海水 朝堂하니 財入府庫 되것구나
五百年 지릭가면 名賢君子 나리로
丙丁方의 通高하니 代代人物 슨여질가
華蓋金星 主人峰은 五姓俱發 ㅎ리로
將相峙 結咽하고 隱山峯을 이라드니
龍虎업시 싱권穴이 兒龍渡江 丁寧하
雲砂가 버려잇고 丙丁이 重重하니
萬鍾泉을 먹글富貴 닙으로는 다뭇하리
아름다운 穴星이야 눈으로 다보것다
더욱貴타 良平之才 代不乏絶 ㅎ리로
이러우로 三奇中의 第一이 되엿구나
穴前의 卯方물이 大海로 돌여가니
재임지 못맛나면 열번씨되 다파리
그리저리 구경하고 仙津나리 건너가니
海中의 노푼山이 九岵山이 각갑구
그산의 올라가니 고기잡는 漁翁들은
늑기티늘 되류유고 그턱을 자로본
當代發福 長久하니 香火不絶 하거구나
主人 츠자보니 金水山이 損卦로

前后的 잇는穴이 不貧不富 ㅎ여셔ㄴ
長頭山 도ㄴ셔니 海邊의 大窩잇셔
上下의 싱겨시니 火姓이 主人이ㄴ
鳳山의 鳳穴보고 鹽所의 穴보니
保子孫은 비록ㅎ나 大小科慶 업서구나
그박괴난 귀경업셔 獨木柿의 들어셔니
猿猩이 한나잇셔 果實를 품의안고
가을 바롬의ㅎ야 두러시 안지구ㄴ
坤申脉 庚入首의 艮水가 乙의디니
明堂이 廣闊하니 저격을 안일엇ㄴ
富貴도 만커니와 子孫이 万億이라
兌金星 主人이라 代代榮華 ㅎ오리라
姓名遠近 두가지 水火山의 謙卦로다
그식이의 數多穴은 다몰ㅎ기 어렵구ㄴ
거문고 타는玉女 抱瑟厓가 完然ㅎ다
鼓머리가 머러시니 穴落平地 潮濕處라
돌박고 물말기면 북소리 나리로ㄴ
아미도 이흔穴은 火姓이 主人이ㄴ
竹杖으로 山늘치니 三角山이 예쏘잇ㄴ
山頂늘 올라보니 庚兌乾亥 脉이로ㄴ
四節下의 圓暈形体 穴在窩中 하엿구ㄴ
碑文늘 상고ㅎ니 權氏墓가 직켜구ㄴ
물무늘고 시전이업셔 그저ㄴ기 셴셴ㅎ야
筆囊의 붓리여 이山運路 괴록ㅎ야
穴가온ㄴ 무더노코 欣然이 도나셔니
日后의 有識君子 과이수종 마러셔ㄴ
괴嘆을 不己ㅎ고 싱질로 내려오니
그가온ㄴ 무친穴이 적지안니 ㅎ것구나
水口圓峰 불작시면 明哲之人 만이나리
그질로 귀경하야 拜禮峙 올라셔니
山다하고 물다한ㄴ 拜起相迎 더욱쫓타
寅艮脉의 辛戌破은 世俗사람 어이알이
龍長 穴拙ㅎ야 鉗속의 窩이되니
速發長遠 이큰穴은 그뉘라셔 알아볼고
天馬는 암애잇고 旗鼓은 우애잇ㄴ
五老峰의 오난괴운 이박괴 다시업다
子孫福祿 만ㅎ것시 이고을의 듯지로ㄴ
主人峯을 자세보니 火山旅卦 解得ㅎ쇼

그산을 너머서니 임직업는 저막아지
마구를 져타두고 갈디을 전히몰나
말독바우 바리보고 누습한디 누윗구누
이穴을 찾자하니 主人업서 어여와르
만일애 어더스면 文千武万 날거시오
名望잇난 子孫잇서 百代有傳 흐리로드
그질로 내려오니 蒼龍出雲 奇妙하드
甲卯乙辰 巽入首의 庚水가 쫓로간드
四山이 拱朝하야 珠山이 水一口로다
大小科慶 大富貴난 代不乏絶 흐것구누
堂山洞 들어서니 大小穴이 만하도다
金釵掛壁 蜈蚣形과 仙人舞袖 雙龍出水
十里內의 싱겨시니 木火姓이 직키이르
甲山東南 돌아보니 穴이사 만컨마는
主人이 獨立하니 아러보리 뉘잇실고
其中的 貴한거시 紫鶴歸巢 쏜이로드
鶴洞이 압패잇고 三山이 뒤의잇드
穴在 鉗窩中の 平地陰砂 알아시니
만일애 어더쓰면 七代翰林 三代文科
代代로 날거시오 富貴无雙 흐리로드
그러저리 求景하고 馬樞山늘 너머서니
前後左右 回抱하디 鳳하나 싱겨구나
乾亥三節 結咽하고 亥坐의 巽破로드
大小科도 만컨니와 四代尙書 二代王妃
万世을 長久하야 名厲一國 하리로다
이主人 아자거든 金山의 遯卦 자세보소
그리로 라애오니 森溪縣이 여기로드
堂局이 廣闊하니 人物이 번성하리
鉢玉山 一氣脉이 紫氣木星 나와수나
焚香하고 四拜하여 그고디 들어가니
西南의 鉢盂넛코 老장이 禮佛하니
穴星이 方正하니 壬亥脉의 巽水로드
文科七人 흘거시오 百子千孫 흐오리아
首陽山 大過峽의 나문괴운 촛조가니
大犢峙 五過峽은 无雙之穴 만컷구나
그산의 올라서니 羅州가 거기로다
逆氣로 가난龍이 眊가미고 分明하드
龍穴이 추악하니 保子孫 쏜이로다

辛戌結咽 起頭호고 勇珍山이 싱겨구는
丑艮으로 起伏호니 眞龍正穴 이겨시라
双鬼樞星 식운고되 曲尺그겨 丁寧하다
龍頭의 穴이나니 橫梁案이多情호득
子孫福祿 마커이와 富貴는 전히업득
老鼠下田 數多穴은 水土山의 既濟卦라
落月峙 過峽處의 半月形이 奇妙호다
穴后의 天財土星 어니明眼 알아볼고
用之八年 初發하야 富貴兼全 호리로다
亥入首乾 亥穴은 當門水가 遠乾호니
長孫은 欠업스나 中末의 初敗보리
艮行八節 下의 仙人形体 特立호니
이겨시 主人인가 놓으쳐사 하난구는
庚兌脉의 將軍形은 艮水가 歸乙 하엿쏘득
文科七人 늘거시오 水月洞 너머가니
上下穴이 쏘잇구는 子孫이 만니나고
百代香火 不絶하리 主人形体 살패보니
水火姓이 되리로다
大증의 大幹龍脉은 二十二節 웅위호니
大穴나난 根本이라 그뉘라셔 分별홀고
거능을 밧비호야 數里늘 내려가니
華蓋金星 차린후애 滿月掛西 차여구는
穴前의 올라셔셔 前後左右 슬퍼보니
七星峰 三台案의 錦繡屏帳 돌너시니
文千武万 十代相과 七代王妃 万鍾象은
積善積德 은이호고 저막득 여들손야
姓名坐破 시아르니 水木山이 坎卦로득
穴星이 圓厚호니 上下分別 어려와라
乳中의 微窩보소 用之五年 速發홀이
三十九代 골거시니 蠡斯千古 불러홀가
乾亥南麓 辛戌峽의 丹鳳形勢 第一이라
穴后의 天輪土星 아라보그 어려외라
自然官星 案이되니 萬世榮華 호리로다
鉗속의 窩가되니 靑沙黃土 나리로다
이山主人 그뉘런고 水火姓의 썩이로다
장삼늘 썩쳐넙고 伏龍上頂 올라가니
御屏帳幕 들운밧티 穴호나 못쳐구나
前案이 廣闊호야 數里을 열어시니

火姓이 主人이랴 그外사름 슬디업득
坐한나 그웃하면 三代가그 어려우리
竹杖으로 가라치며 南麓으로 구버보니
主人업시 무친穴이 야답이 쏘잇구나
世俗사람 눈잇거든 이穴초자 쓰거드면
万子千孫 大小科은 代不乏絶 흐리로득
北으로 도라보니 多少間의 잇난거시
帳中속의 들러시니 水姓이 작그리랴
龍과脉이 옹위흐니 平地로 내려가니
別般氣像 잇그로써 그아리로 내려서니
黃龍 負舟흐고 자최업시 쏘어시니
아미도 이한穴이 奇奇妙妙 하것구나
大江은 압패잇고 큰질은 뒤잇득
艮行二節 亥二節의 乙水가 歸未壬坐로다
巽辛艮丙 相對하며 乾亥子午 相逢흐니
龍頭峯 水口미그 珠山이 完然쿠나
穴星이 圓厚흐야 天綸仙態 들녀시니
五尺七才 파거드면 石坐中의 雙鯉로득
傷치말고 쓰거드면 六十八將 長遠흐리
穴을보고 主人보니 金土姓이 안일런가
錦城山下 行舟形은 四百餘年 王都로득
南으로 내려가니 雙龍合衿 形体좃타
台峰은 左의잇고 半月은 右의잇득
坎癸行脉 壬亥脉의 亥坐巳向 巽破로다
三聖五賢 五代翰林 將相이 連出흐리
七代을 지닌가면 宗廟配享 하것구나
主人形勢 시아러이 木卜姓이 大發흐리
그우히 올라서니 陰陽宅이 俱吉흐다
그엽패 늘근龍이 如意珠을 닷투난디
庚兌로 發足하야 壬亥로 머리지며
庚辛으로 魚袋낏코 庚水가 歸甲흐니
百子千孫 富貴萬華 永世无窮 흐리로다
五尺三寸 파거드면 五龍寶劍 잇것구나
부딕부딕 조심흐야 상치 말여씨라
第山峰下 十二節의 陰陽宅이 다잇구나
大小科 비록흐나 成敗多端 보그슬득
그리저리 求景흐니 西北山水 絶勝흐다
行舟形은 天基되고 업진獅子 잇것구

飛鳳은 집을찾고 胡馬은 춤을춘듯
辰巽土体 微突形이 이불山이 쏘잇구느
大小科第 흔니나고 子孫千億 富貴하리
白龍山 올라서니 八大穴이 싱겨구나
兒犢顧母 白鶴展羽 그중의 더욱좃듯
壬坎脉 乙辰水애 將軍大坐 거기로다
案山이 重疊하니 水口關鎖 하여시니
蠡斯千古 흐려니와 食泉万鍾 어려울가
五尺五寸 파거드면 紅粉金沙 靑器로듯
主人峰을 자세보니 水土姓이 직키리ㄹ
山脉이 淸秀하듯 北龍지을 너머서니
主龍壬坎 庚兌回頭 七四器난 天器노니
木姓은 淫行하고 火姓은 發興하야
龍巳聚會 富貴穴은 木浦가의 싱겨구느
主人形体 乾卦되니 徐白姓은 大發하리
錦城山前 后左右의 陰陽宅이 無數로다
甲卯脉 庚兌坐의 艮水歸乙 丁寧하듯
몬지난 牛峙찾고 后애난 丑峯보소
巽辛은 相對하고 艮丙은 相望이ㄹ
伏龍은 丑애잇고 靑虎은 丁애잇다
四尺下 三色土의 生物거벽 날거시오
傷티말고 쓰거드면 三公道伯 어려울가
四十字 訣彙中애 金土姓이 主人이라
私欲을 멀리하면 보기도 쉬우리ㄹ
그지을 너머서니 老鳳歸巢 더욱좃듯
穴在上聚 微窩處라 艮坐의 戊破로듯
乙辰方이 空虛하니 初年敗은 비록하나
三十八代 지닌后의 子孫福祿 連代하리
西北向의 數多穴을 낫낫시 말차하니
니말리 虛事될가 식상임이 可畏로듯
그외의 無欠大地 龍穴圖의 잇나니ㄹ
竹杖으로 직촉하야 咸平地境 너머서니
닷난사심 너난어니 龍泉을 압패두고
艮脉 十二節의 穴星이 圓厚하야
淺窩로 싱겨시니 陰砂合衿 分明하듯
穴前의 卑濕하니 알기가 어려워ㄹ
天門의 金星形体 當局水가 丁의가니
만일초자 쓰거드면 百子千孫 長久하리

半路로 數里許의 山形이 勝復하디
左右가 만포하니 陰宅 奇妙하디
木姓百年 后의 火姓이 主張하리
玉女峰을 바리보고 綾綾니 거려가니
山船水走 하난고의 水星精神 秀麗하디
三綱과 八條目은 女子으개 不當하디
女必從夫 듯슬아라 雲仙을 초지라고
빈히을 썩어잡고 欣然이 내려오니
마음드온 저티도난 丈夫마음 호탕하디
거문고 뇌인고디 노릭소리 늑늑고디
거음을 밥비하야 穴前의 드러서서
玉梳案을 차자라고 左右로 들러보니
고매리와 大學坪은 上下로 버러잇디
만한나 그릇치면 代代淫行 나것구늑
이山主人을 찾자하니 水火山이 泰卦로드
文科三人 날거시오 大富子孫 나리로르
甲山南 十五里의 八大穴이 쏘잇구나
主人을 초자보니 水火姓이 직키리아
文科三人 날거시오 百子千孫 富貴하리
그아리 漁翁垂釣 穴在鉤中 하얏구나
이을초자 쓰거드면 遠發富貴 하리로다
双栢洞 차자골제 路上애 拜禮하디
十餘里을 드러가니 애설강을 하난구나
둥더리 뒤편서서 뇌승을 위로하디
나만한 저노승이 가사을 다바리고
염주만 손에들고 이리저리 徘徊하디
두량이 흰칠하디 精神이 식식하다
마일애 차자 쓰거드면 文千武萬 代代하리
主人姓名 보려거든 土山의 此卦解得하소
主人 보려거든 낫낫시 말할숫야
그날로 질을터나 務安으로 作路하나
山畫水明 하난고디 多少穴 업슬손야
台峰下의 伏虎形은 眠犬案이 分明하디
龍虎四抱 水口上의 穴在田中 四巖開을
工夫하난 地師야 裁作하디 어려워르
그외의 十二穴은 괴뉘라셔 아라볼고
三水洞下 初過峽의 九實지가 싱겨구늑
그아리 將軍形은 文千武萬 十代로드

이穴 차자거든 투구바우 무려보소
四十三節 乾亥脉의 僧達山이 特立하니
금슈屏帳 둘러난디 우리스승 계시도득
堂局이 平順하고 規模가 廣大하니
帝座氣像 노파노디 山水會同 하여구나
天藏地秘 하온穴을 제마닥 귀경하리
百川이 會朝하고 萬山이 輻輳하니
甲山精氣 외온고디 설법가사 버려시니
아름다운 저案山の 열두상자 分明하다
鉢盂디난 東의잇고 雲岩은 南의잇다
저老장의 거동보소 百八念珠 손의쥐고
七十加綵 설쳐입고 모든弟子 講바드니
그중의 늘근중이 시승키 問安할씩
영주한나 느려져서 水口圓峰 되엿구느
艮兌金星 冲天한디 穴在方圓 盖粘處라
四輪斗石 뒤이잇고 金魚玉帶 아리잇득
八百煙花 되여잇고 三千粉黛 외와든득
乾坤艮巽 特立하니 王子師傅 흔이나고
丙丁巽辛 노파스니 壯元及第 代代히리
葫芦山 나타나니 女作王妃 흘거시오
雲蒸貴地 하여시니 應天上之 三光이라
土不土而 作金하니 眩目惑心 되오리록
北辰天柱 노파시니 覓宇宙之 無窮이라
鮒龜捍門 너려시니名 振他邦 히리로득
交鎖直結 히는양은 四字가 分明히득
回天命改 造化은 鬼神은 도음이라
錦江百里 두른물이 魚貫大陣 되여구나
聖賢은 야담이오 將相은 代代나리
伊后子孫 千億 萬世萬世 長久하리
이山運路 시아려니 九十八代 香火하리
主人나셔 찾거드면 一夜間의 永葬處라
七尺下 怪異石은 귀신도 도으이라
가괴을 이저더니 날이이무 저물거늘
거능을 밧비하야 竹田으로 내려오니
丹邱아닌 나온鳳이 집을차즈 도라든다
梧桐枝 인난고디 護興峯이 多情하득
마디마디 起伏하야 丑寅으로 脉이나니
穴后의 鍊丹石은 太極形体 分明히다

毬簷葬口 分明씨고 平地陰砂 四抱하니
乾入首 當門水은 三公道伯 代代나리
六尺二寸 파거드면 五色黃土 나것구누
用之八年 初發한니 그거시 더욱쫓타
山脉이 秀麗하고 水勢가 明朗하니
奇奇妙妙 싱겨시니 湖南大地 되오리라
案山上瑞 九星 朝陽이 丁寧하니
文千武萬 十代翰林 헛말이 아니로다
主人峯을 좃조보니 水火姓 직키리라
艮丑峰이 노프시니 丑生發陰 쉬우리려
主人形体 文筆이라 九仞山이 案이로듯
天輪진듯 모느거든 이런穴을 어이아리
穴前의 패인돌이 四金帶니 줄 모르리라
엇지하야 이큰穴이 不遠間의 생겨구누
姓名居地 運路보니 木火山이 家人卦라
身勢트냥 잠싼하고 水月洞을 너머가니
구름속의 무친穴이 世俗사람 아라볼가
이山運 시아르니 萬子千孫 累代富貴
집집마닥 흘거시오 사름마닥 바드리려
艮入節 癸入首의 乙水歸未 壬坐토듯
그리로 내려오니 八十老翁 밧가난듯
엇더흔 계집사람 점심니고 도라서니
시장도 흐거니와 골흔증이 나난구누
흘슈가 전히업서 老翁보고 사례하니
나을마자 上坐하고 飲食을 勸하거놀
그질로 내려와서 그老翁을 인도하야
물가의 내려와서 老鼠下田 가으치니
當年の 發福하야 三代富貴 흐오리라
그질로 내려와서 玉女散髮 求景하고
西南으로 건너가서 多少名穴 다본后의
狗峯 너머서니 猛虎渡江 하난구누
泰山이 峻鬱한듯 大水가 冲殺하니
이겨시 貴格이려 速發長遠 흐것구누
만일애 그늦치면 當代暴亡 흐리로다
자새히 이르나니 穴在平地 無人處려
그리로 도라서니 漁翁垂釣 잇것구누
穴在鉤中 하여시니 아라보리 업스리라
두루다 求景하고 東倉으로 내려오니

心神이 散亂싸늘 卦어더 解得하니
七十七年 우리老親 病患이 危重겨늘
그늘로 내려가서 不孝을 못免하고
天崩地痛 ㅎ는后의 飛鳳抱卵 裁穴하니
石中北穴 이거시라 傳之無窮 바리더니
ㅎ늘이 미워하고 鬼神이 作害하야
三年을 못지니여 破傷之物 되단말가
질痛하고 질痛하드 운數라 어이홀고
어이홀고
어와 벗임네야 吉地늘어 들진딘
아난것도 슬디엮고 順天積德 하야셔럭
그后난 糶수엮서 村后의 安葬하고
三年늘 지닌后의 光陽雲山 들어가서
數間庵子 지어니여 일흠을 玉龍寺라
寺門밧기 나지안고 臥遊江山 하리로다
어와 이니폴족 어이그리 可박한고
ㅎ날이 나을니니 厚薄이 엮건만은
엇지하야 닉신슈가 그되지 薄福하고
平生을 도라보니 積德惡홀일 엮셔시니
사름으로 싱겨나셔 운數어이 그러한고
가심이 답답하야 물을고시 전이엮드
이치라 ㅎ난거시 禍와福 두가지럭
孔子가튼 大聖人도 뭇뭇스면 멸망하고
鼓叟가튼 惡한니도 뭇잘쓰면 舜을나니
구키도 어렵건타 안이구키 어렵도드
吉凶禍福 두가지을 부디부디 주심하소
닉마암의 병된거시 私欲박기 다시엮닉
私欲이라 ㅎ난거시 亡身敗家 ㅎ리로다
어와 食상사 남니마늘 자세듯소
爲親求山 ㅎ는날의 富貴늘 싱각말려
虛欲을 닉지말고 体魄安寧 싱각하야
春夏秋冬 四時엮시 心을되래 求山하되
暫時라도 잇지말고 一心專力 하야셔라
굴흔사 물먹기와 쥬린씩 밥먹기난
사람마닥 ㅎ거니와 求山하난 이마암은
좀치로 못되리럭
近來人心 살퍼보니 몬저 아로라고
적공잇난 그사람을 冷笑하고 바양하야

財物두고 자랑흔들 鐵石갓튼 이니心腸
誠之一字 짐작하제 財物보고 淸節홀가
흐날리 사름닐제 賢愚가 다를소야
그릇친바 物欲이오 히로운겨 血氣로득
스람야라 보논법이 穴차기와 갓타니라
만일의 그릇보면 滅門之禍 나난니라
近來의 地師더리 一字不知 無識으로
龍穴砂水 吉凶論을 담을치고 안져셔도
穴을안다 자랑하면 千金으로 피킷밧고
安全하야 求葬하니 無罪흔저 白骨리
水火廉貞 못피홀제 그뵈子孫 편홀소야
地理라 흐난거시은 無識하고 슬딤업득
이치 通脉보고 先生의 눈을어더
山水勝復 흐然後의 避凶趨去 흐난구느
術客의게 독흔병이 言賊默賊 두가지라
식상사람 룬잇낫가 이두병을 자세보소
文筆이 넉넉하고 마음이 온자하야
先生키 빅온말을 耳目聰明 어든후의
이쳐로 分釋하면 殺人禍를 면흐리라
天地間 陰陽二氣 四十九體 變形하고
胞胎라 하난것도 三十六宮 각기달나
분별하기 어려거던 無識흔저 소견이
무어슬 아느라고 自私明眼 흐난구느
올른先生 만난후의 大小綱領 빅와두고
穴之眞假 砂水吉凶 낫낫치 安然後의
大小運路 짐작하야 興亡盛衰 가려니니
의심이 날로싱겨 無識을 못免하야
이런말이 북그려라 운슈업는 타시로득
그러나마 이니몸이 虛欲이 업셔시니
保存家戶 흐련마는 私欲이 눈을덥고
운슈가 비식하니 몰흐여도 쓸딤업다
湖南五十 數多穴을 多少間 쓰자하면
쓰기스 쓰제마는 엇지다 이니欲心
남의물건 아시라고 닌물건을 몰나본고
어와 닌일이야 私欲이 날죽인득
許多흔 이니恨을 세세로 몰차흐니
정신이 삭막하고 간장이 다석것득
우리先生 놀가라칠제 朝鮮山川 吉凶地와

善惡人心 取擇하야 主人차차 맛기라니
八路을 두루보니 穴줄사람 흔이만득
十條通脉 버린그얼 어닉고되 천홀손야
五埕山 白雲庵과 智異山 靑鶴洞이
절절히 奇妙하니 이고되 감출리라
龍穴砂水 버린그리 알기도 쉽거니와
通脉이라 이흔글은 口傳心授 안이여든
千萬年을 지니가되 아라보리 업스리라
日后의 有識君子 이니로릭 들어보면
알기도 알너니와 龍穴圖 짐작하리
신세타랑 하다가셔 분흔중의 이글지여
十條함고 감추노니 外人不傳 부되하소
그릇알고 전커드면 양禍받기 쉬우리라
才操인난 눈니이씨 穴을볼듯 하건마난
山家通脉 몰나노면 殺人滅亡 어이올고
世上의 흔한이쳐 滅蠻經이 니거시라
惑世하난 저사람아 이겨스로 穴을볼가
古今의 만한書冊 모도득 차자업세잔니
無識한 世俗사람 이글로 준헝하니
업시하교 업거니와 부되부되 짐작하소
이치릭 한난거시 一以貫之 흔后익스
千萬山를 다가보되 毫釐不差 하난이릭
胞胎九星 두가지가 虛實이 相雜하되
虛한거슬 밋거드면 멀만하교 잠싼이오
實흔것슬 어드로면 不中不遠 하난이라
九天變數 十二星은 奪造化之 妙術이릭
순으로 보와셔 노제마닥 아라볼가
擇日中의 妙하法은 三家五將 이박고라
어되가 쏘잇난가 君父박고 못하느니
부되부되 조심하야 銘心不忘 하여셔라
니弟子 三人中의 江海才操 絶妙하다
너난 잇숫마러 勿傳外人 하애셔라
年將七十 늘근몸이 獨居山 深하야
竹杖으로 벗슬삼어 남은山川 求景하니
山畫水明 하느고되 海南이 여기로다
大湖邊海 蝦弄珠公 卿案이 위직하득
烏石은 坤의잇고 名泉은 酉의잇득
丙午方 삼권구슬 江우의 버려잇고

嶋고지의 나난상서 百代香火 ㅎ오리라
乾亥龍庚 入首의 卯水歸乙 分明ㅎ
이穴을 초즈거든 粉洞을 물어보소
이山運路 살펴보니 火姓이 主人이라
棠岳北 十里許의 ㅎ씨군사 되왓구느
四方 平平ㅎ되 窩中突氣 싱겨구느
천금사 한자리의 아라보고 쉬우리ㅋ
이山主人 보려ㅎ니 金水山이 巽氣로다
西太山下 胡僧禮佛 鉢盂案이 天基로다
主人峯이 木姓이라 李氏主張 ㅎ오이라
東으로 구버보니 업진범이 느려온ㅎ
眠犬案 犬川邊의 穴在平坦 石土로다
前後左右 둘러잇서 子坐의 當門이ㅋ
만일의 어더쓰면 富貴兼全 ㅎ오리라
그외의 數多穴은 龍穴圖의 인난니라
두루다 求景ㅎ고 康津으로 너머서니
바딕가의 닷난龍이 五雲이 玲瓏ㅎ
龍池十里 너룬물리 水帶莞島 하엿구나
穴압패 名泉잇고 白虎밧고 人家잇ㅎ
이山形体 ㅈ세보니 亥坐의 巽破로다
木人姓이 못어더면 崔人의 ㅈ이로다
用之十年 大發ㅎ야 三國宰相 나오리라
東二十里 乙字脉의 半月山이 더욱죇ㅈ
正星미ㅈ 穴를미ㅈ 은연이 슈머시니
無欠大地 이거시라 사람마닥 어들소야
이山主人 슬퍼보니 留待后人 ㅎ느구나
翰林이 아흠이오 尙書가 ㅎ나로다
이穴이고 妙ㅎ기로 圖式을 그려니니
坐得破 짐작ㅎ니 水土山의 漁卦로ㅎ
柳李兩姓 어더스면 連代文科 富貴로다
그져ㅈ 업진범이 먹을거시 마난구느
乙山未脉 十里許의 午丁으로 라여와서
巽入首 庚得癸破 大川이 되엿구나
만일의 찾거드면 百子千孫 ㅎ리로다
東으로 건너가니 춤을츨난 저仙人은
風嶺上 舍人峰下 乾亥十節 坤坐로다
이山主人 보려하니 金姓이 完然우나
二代의 發陰ㅎ야 九卿八相 나오리라

童子土星 뇌여거든 穴인줄 짐작하소
그아리 나아오니 龍馬飲水 쏘잇구느
金岡一脉 自南우의 月出山이 싱겨구느
左脚峯右 星山の 子坐午向 當門이라
主人이 多情하고 起伏이 分明하드
穴落平地 乳頭하야 미미陰砂 돌너시니
만일의 어더쓰면 文科七代 날거시오
百子千孫 富貴하야 百世榮華 하오리르
이山主人 자식보니 木火山이 離卦로드
만일애 어더쓰면 不遠間의 싱겨구느
興陽東頭 上帝奉朝 이겨시 奇妙하다
穴在 鉤中하야 左水가 流東하니
主人峯이 金星이라 水土山이 恒卦로다
그아리로 내려오니 나눈龍이 바뒤보고
연쥬익을 의지하야 흙업시 싱겨잇드
大路난 在前하고 三龍虎 重疊하니
丁七節 丙三節의 午坐의 子破로드
이山主人 구버보니 水火姓이 직키리르
北으로 五十里의 雲中微月 쏘잇구느
左長右短 石脉中の 穴在峰下 分界處라
左右의 버린峰巒 明堂을 돌너셔니
累代文科 놀거시오 百子千孫 흐리로다
主人峯을 자셔보니 李氏山이 되오리라
兩龍爭珠 伏虎形은 鳳凰埕上 龍이로드
九江一分 細絲脉의 連珠난 竹島로드
南으로 내려가니 黃巳出草 싱겨구나
此山之下 三邱上의 向孤砂을 穴을미자
微微크 숨어시니 아려보크 어러와르
그아니 내려오니 禮佛하는 저老僧은
華蓋冠嶺 그새이의 申兌로 穴을미자
海水中分 하온고되 瀛州秀麗 案이되니
陰陽宅이 俱吉하야 萬歲榮華 흐오리라
이山主人 찾조하니 木山の 遯卦 丁寧하다
北으로 너머가니 美人貴星 뒤의노코
丑艮으로 屈曲하야 三台늘 버려시며
巽卯入首 甲坐原의 亥水가 乙로가니
芙蓉大帳 버린고되 人山이 水口로드
이穴을 어더시면 位高一分 富貴하리

主人峯의 土星이라 金山大壯 되여구나
 西으로 二十里의 飛鳳歸巢 쏘잇구나
 庚兌行龍 壬亥入首 亥庚水가 歸未흐니
 五尺二寸 파거드면 珠玉한雙 이슬씨니
 傷치물고 쓰거드면 代代榮華 흘거시오
 累代翰林 百子千孫 清高不絶 흐리로드
 이山主人 슬퍼보니 留待后人 흐리로다
 그엽패 紫鳳抱卵 太山下 小水上의
 亥三節 艮作氣의 巽方水가 歸未흐니
 白石은 在后흐고 黑石은 在前흐니
 穴在微窩 卑濕處로 子孫千億 되오리라
 海水東南 鸞巢形은 甲卯行龍 艮土峯의
 天土峯은 庚이잇고 貴人星은 坤이잇드
 艮入首 丁水破의 人山水口 護從흐니
 案前倉庫 버려시니 穴在巨石 石磷下라
 五尺七寸 파거드면 三色土中 石坐나리
 傷치말고 쓰거드면 文武竝發 흐거이와
 八代尙書 五代閣老 三代大將 王妃날리
 不遠間兩 大穴이 木星主人 分明흐다
 迎日人이 못어드면 華脂山의 子孫이라
 歎息 不已흐고 靈巖으로 너머가니
 東北十里 武公端坐 掛弓案이 되여구느
 文武七人 늘거시오 位至二品 하리로드
 主人峯을 아자거든 木山恒卦 자세보소
 月出山下 花檻形은 天基로 싱겨구느
 東편의 龍馬赴敵 飛去飛來 落水中の
 蝦坐가 東의잇고 神人이 춤을춘다
 穴前의 올나안자 가귀을 이저더니
 明朗한 저흐랄이 雨水가 急흐거늘
 갈바을 전히물나 거음을 직촉하야
 山下로 닌여오니 一間斗屋 그柴門의
 白髮老翁 奔走커늘 그老翁을 차자니여
 비피홀일 의론흐니 저老人이 마즈드려
 안방의 안치고서 夕飯을 지어주니
 飲食이 소담하고 山菜가 정결흐다
 主人姓名 무려보니 愼老人이 丁寧이로
 年將六十 저老翁이 俱無子女 偕老커늘
 마암이 不祥키로 龍已聚會 가라치니

用之三年 初發하야 百子千孫 홀거시니
 나희만코 병이만컬 帝陽으로 分金하니
 三日內의 喪妻하고 二十八日 再娶하야
 三月內의 立胎하야 連生三子 하리로다
 大抵ㄹ 이한법은 九天運路 十二宮을
 흔구무로 쏘바닉여 開生休囚 열거시니
 奪造化之 妙術이라 저마닥 알라보리
 거그서 머물는제 於焉間의 五月이ㄹ
 本土로 가려하니 主人老翁 말뉴커늘
 지극켜 사랑하고 鳩林으로 다시오니
 九天의 가신父母 瞻掃封塋 畚이로ㄹ
 終日토록 痛哭하고 마을로 드러가니
 村樣은 依舊하나 人心은 大變하야
 暫時도 留키어려워 芻로나려 가려하니
 外戚의 扈老人이 지극과 請하겨늘
 거그가서 留하면서 寶劔出匣 가라치고
 數日을 지닌后의 親山守護 付託하고
 靑鶴洞 들어가서 先生敎訓 잇지안코
 十條通脉 이닌노리 石窟속의 너여두고
 東方盛衰 아러써서 石門의 식여서ㄹ
 日后의 이石門을 成士謙이 차질리ㄹ
 八路名穴 圖式그려 노리긋티 芻친나니
 同父母 兄弟라도 그른고디 傳치올라
 앙禍난 姑舍하고 신긋루설 되난이ㄹ
 우리나라 人民되여 正誠으로 求山하면
 첫지은 爲先이요 듯지은 제일리라
 다는일은 求하다가 안니되면 그만이되
 求山이라 이한일은 잘못하면 亡家하리
 世上사람 눈잇겨든 求山하고 심써씨라
 죽은父母 陰德으로 子子孫孫 富貴하면
 이안이 조흔일고 사람만닥 심써보소
 我東方 地理綱 領水火이 傳授하리
 白頭山 올라가서 도늘세워 芻하고서
 馬鐵嶺 너머서서 五埜山의 라여오니
 白雲庵의 모든精氣 與天地로 偕亡하니
 張道士의 일을보니 꽤쌌기가 가이업ㄹ
 年少흔이 소겨니 남의속의 속켜여서
 그르친일 만켜니와 이도쏘흔 운슈로ㄹ

전허물을 갑조흔들 그사람이 죽어시니
어디가 말할소야 다뭇될 일이로득
그령저령 지닌드가 與草木 同腐하시

須知章第一

南同遺[∞] ∞ 圃修正

天地萬物 싱권后의 사람이 最靈하니
陰陽五行 正氣바다 賢愚가 各殊하니
賢者養性 훌겨시오 患者[∞]利 호오리라
天地가 神明하고 嶽瀆이 鍾靈하사
五清河 甲寅冬의 우리先生 나의시니
文筆도 거룩하고 才操도 卓冠하든
甲辰年 春正月의 나을보고 사랑하사
心志늘 通후의 地理書 가라칠제
十條通脉 중헌글을 三年만의 傳授하니
死生잉세 큰헝실을 生前의 이저노면
明明日月 之下의 鐵鉞이 在前하니
마음을 구지^ㄱ저 先生말삼 銘念하니
耳目이 聰明하고 精神이 식식하든
三十年을 山의노라 許多名穴 求景하니
이치도 어렵건과 山規矩가 더어렵다

[현대역]

그리저리求景하고

능주(綾州)로 달려드니 호승산(胡僧山)이 분명(分明)하다

그 산(山) 찾아 등산(登山)하니 지장동(志杖洞)이 분명(分明)하다

호승예불(胡僧禮佛) 분명(分明)하다

저기 앉은 우리 신임 문안납배(問安納拜)1하는 형상(形象)

좃을시키고 이 내 흥(興)을 저 산천(山川)에 발행(發行)2하니

우리 신(神)임 석상(石上)에 걸터 앉아 백팔염주(百八念珠) 손에 들고

감중련(坎中連)3 구궁형상(九宮形象)4 그 안에 좃을시키고

축인방(丑寅方)에 바(鉢)리때5라 병정방(丙丁方)에 장삼(長衫)이오

가사내복(加袈乃服)6 단정(端正)하다

혈하(穴下)의 동자석(童子石)은 합장배례(合掌拜禮) 더욱 좋다

용호(龍虎)의 상괴봉(上怪峯)은 차례(次第)7로 들어섰다

경신방(庚辛方) 헌향동(獻香童)은 식년(式年) 마당 취적(吹笛)이라

건해방(乾亥方) 건일사(蹇駟砂)는 백자천손(百子千孫)8 하는구나

축인방(丑寅方)의 바(鉢)리때는 삼대명장(三代名將) 좃을시키고

오정방(午丁方)의 장삼사(長衫砂)는 열녀효자(烈女孝子) 나는구나

좌향(坐向) 나와보니 갑좌병향(甲坐丙向) 분명(分明)하다

득수(得水)9를 얻어 보니 오정득해파(午丁得亥破)로다

혈상(穴上)에 천제봉(天祭峯)이오 혈하(穴下)에 적름암(積廩巖)이라

그 곳에 하직하고 능주북(綾州北) 십리외(十里外)에

황앵탁목(黃鶯啄木)10 분명(分明)하니

녹음산(綠陰山)이 혈상(穴上)이오 양류객(楊柳客)이 혈하(穴下)로다

재혈우간(穴在羽間) 제일지(第一枝)라 안송남훈대(案送南薰垵)요 수파하구(水破夏口)로다

쌍봉치(雙峯峙)를 찾아 가니 비응방수(飛鷹放手)11 분명(分明)하다

복치체(伏雉體)를 찾아보니 자손(子孫)의 부명(富名)이라

오대부명(五代富名) 오대진사(五代進士) 나는구나

어느 신안(神眼) 찾아볼까

그 길로 찾아 들어 행걸식(行乞食)12 유숙(留宿)할 새

차사(此寺)에 이삼삭(二三朔)13 유숙(留宿) 후(后)14에

매화정(梅花亭)을 내려가니 매화낙지(梅花落地) 분명(分明)하다

동류수(東流水)의 서견파(西見破)는 당국(當局)으로 흐르는데

혈전(穴前)에는 마치체(馬齒體)요 혈상(穴上)에 삼화지(三花枝)라

손신방(巽辛方)에 날아드는 호접(胡蝶)15들이 혈전(穴前)으로 날아들고

이 묘의 자손(子孫) 되는 품(品)은 당대부명(當代富名) 오대전(五代傳)은

인물(人物) 대대(代代) 나는구나

그 곳을 하직하고 도암산(濤巖山)을 찾아드니

석상(石上)에 날아드는 비응형(飛鷹形)은 일재형상(日才形像) 이로우나

계축방(癸丑方)에 비치형(飛雉形)은 건해방(乾亥方)으로 반주(反走)16하네
재혈(裁穴)을 놓아 보니 극난(極難)17이라
밤철을 불끈 쥐고 비응형(飛鷹形)을 찾아 드니
나를 보고 날듯한다 은근슬쩍 들어가서
124일(一二四日)을 재혈(裁穴)하니 능주(綾州)의 제일지(第一地)18라
오정방(午丁方)의 화장봉(華長峰)이 산천(山川)으로 응대(應對)하네
경방(庚方)의 부흥암(富興巖)은 살촉같이 날아든다
우간(羽間)으로 재혈(裁穴) 놓으면 혈형(穴形) 좋다마는
화장봉(華長峰)이 대흉(大凶)이라 자세히 보니 공감(空匣)이라
혈재과간(穴在瓜間) 양혈(兩穴)이라
안산(案山)19을 볼 것이면 반주사(反走砂)로 복치(伏雉)로다
용산후(用山后) 되는 품(品)은 이대명부(二代名富)요
이대충신(二代忠臣)과 이대명장(二代名將)이오 십이대(十二代) 거족(巨族)이라
대강만 구경하고 순천(順天)으로 넘어가니
오호와령(五虎臥嶺) 굽어보니 천리행룡(千里行龍) 기묘(奇妙)하다
용(龍) 허리에 혈(穴)을 매자 산천(山川)이 폭주(輻湊)20하네
날날이 진혈(眞穴)이라 오대삼상(五代三相) 하리로다
북십리(北十里) 득고형(得鼓形)은 무동안(舞童案)을 하였구나
그 안에 금반형(金盤形)은 옥배안(玉盃案)이 더욱 귀(貴)하다
약마부적(躍馬赴敵) 탈안형(脫鞍形)은 수역(水驛)에 생겼구나
서십리(西十里) 적룡희주(赤龍戲珠) 칠주안(七珠案)이 분명(分明)하다
노학전우(老鶴展羽) 와우형(臥牛形)은 계성(溪城) 안에 숨었도다
봉조포란(鳳鳥抱卵) 반월형(半月形)은 삼태봉하(三台峯下) 간맥(艮脉)이라
마이좌변(馬耳左邊) 지화처(地畫處)에 상운삼혈(祥雲三穴) 분명(分明)하구나
일혈(一穴)은 거두(居頭)하고 이혈(二穴)은 거미(居尾)하니
칠대장상(七代將相) 오대절도(五代節度) 수구견고(水口堅固) 탓이로다
누대식록(累代食祿) 부귀혈(富貴穴)은 두혈(頭穴)이 제일(第一)이라
수월(數月)을 두류(逗留)21하고 보성(寶城)으로 작로(作路)22하네
산양동(山陽東) 오리허(五里許)23에 반월형(半月形)이 있었구나
삼태안(三台案) 창고봉(倉庫峯)은 양택(陽宅)24으로 생겼구나
남(南)으로 내려가니 갈(渴)한 용(龍)이 물 마시고
강변(江邊) 대로상(大路上)에 무단(無端)이 엮어져 있는데
난 데 없는 사슴 두 마리 화복룡(花福龍)을 바라보고
석각(石角)을 의지하여 어느새 앉으니
이 혈(穴)을 찾자 하면 금산(金山)의 구괘(姤卦)로다
주인봉(主人峯)을 찾아보니 오성대발(五姓大發)25 하리로다
역수개국(逆水開局) 평탄(平坦)한데 문명지혈(文明之穴) 많고 많다
주인성체(主人星體) 바라보니 임씨산(任氏山)이 되리로다

대천변(大川邊) 복호형(伏虎形)은 천년향화(千年香火)26하리로다
 수십년(數十年) 지나가면 과모일대(寡母一代)27 나겠구나
 서(西)로 재를 넘어 장흥지경(長興地境) 다다르
 용산하(龍山下) 상제봉조(上帝奉詔) 배례(拜禮) 반신 되었구나
 육경(六卿)이 안(案)이 되고 삼태(三台)는 서(西)에 있다
 쌍귀추성(雙鬼樞星) 세운 곳에 혈재상취(穴在上聚) 하였구나
 육조신하(六朝臣下) 웅위하니 상대지지(上大之地) 되오리라
 이 주인(主人)을 찾아보니 윤정(尹鄭)의 귀물이라
 이 후(后) 천년(千年)만에 우연(偶然)히 쓸 것이니
 하느님이 주신지라 그 뉘라서 막으리오
 거기에서 불원간(不遠間)에 삼태혈(三台穴)이 또 있구나
 위에는 임군(任君)28되고 아래는 신하(臣下)되니
 어연간(於焉間)29 그 사이에 군신혈(君臣穴)이 생겼구나
 장고산(長鼓山) 십리허(十里許)에 장군형체(將軍形體) 보기 좋다
 중중용호(重重龍虎) 회포(回抱)하여 혈(穴) 안에 원천(源泉) 있어
 삼중안(三重案)에 참두석혈(斬頭石穴) 재경리(在鉗裏) 하였구나
 경태룡(庚兌龍) 건해맥(乾亥脉)에 해좌(亥坐)로 을파(乙破)로다
 동산(東山)의 호마형(胡馬形)은 옥녀세의(玉女洗衣) 또 있구나
 적진하는데 어두혈(穴)이 일령간(一峯間)에 숨었구나
 무과삼공(武科三公) 날 것이오 백세부호(百世富豪) 하리로다
 남행판서(南行判書) 일도감사(一道監司) 장파(長派)에 나겠구나
 동십리(東十里) 석봉하(石峯下)에 무공단좌(武公端坐) 자세히 보소
 경태사(庚兌砂)가 기복(起伏)하여 이봉안(二峰案)이 되었구나
 사석비토(似石非土) 오육척(五六尺)에 백황석(白黃石) 날 것이니
 이 혈(穴) 찾아 쓰게 되면 그 발수 잃지 마소
 속의 반석(盤石) 있을지니 공공지성(空空之聲) 나리로다
 이 혈(穴) 주인(主人) 성명(姓名) 보니 수목산(水木山)이 감괘(坎卦)30로다
 그 건너 복호형(伏虎形)은 천기(天基)31가 생겼구나
 이 후(后) 성현(聖賢) 나면 그 마을이 반조(半朝)32로다
 천관산(天冠山) 금체(金體) 보니 전후좌우(前後左右) 혈(穴)도 많다
 건해맥(乾亥脉) 자입수(子入首)와 석중토혈(石中土穴) 그 중(中) 낫다
 마명동(馬鳴洞) 들어가니 토산석혈(土山石穴) 더욱 좋다
 왕자맥(王字脉) 팔절하(八節下)에 언연히 생겼구나
 돌을 열고 파게 되면 삼색청토(三色靑土) 나겠구나
 목산곤괘(木山困卦) 살펴보니 화성(火姓)이 임자로다
 삼년(三年)만에 환과(鰥寡)33나서 음란(淫亂)이 비록하나
 이 해를 지나가면 문무겸전(文武兼全)34 하리로다
 변(變)지 못할 이 한 물이 목욕수(沐浴水) 닷이로다

가지산(迦智山) 장고대좌(將庫大坐) 대와간(大窩間)에 있었구나
 해수(海水)가 묘당처(廟堂處)라 금목산(金木山)은 기제괘(既濟卦)라
 수다(數多)한 혈(穴)의 이름을 어이 다 말할소냐
 그리저리 구경(求景)하고 능주(綾州)로 작로(作路)하니
 남산(南山)에 창룡출동(蒼龍出洞) 운연봉(雲烟峯)이 안대(案臺)로다
 백운(白雲) 재좌(在左)하고 거동(車洞) 불원(不遠)하다
 태혈(兌穴)에 작경(作庚)하여 사룡삼호(四龍三虎) 되었으니
 양수(兩水) 합류(合流)하는 수구(水口) 화표한문(華表捍門) 이것이라
 서운(瑞雲)은 성문(城門) 되고 손신(巽辛)은 문필체(文筆體)라
 사병(巳丙)의 중중(重重) 매화(梅花) 현무(玄武)의 어병(御屏) 있다
 제궐(帝闕) 불원(不遠)하여 혈재정중(穴在頂中) 하였구나
 오륙척(五六尺)을 파고 쓰면 무세근세(武世近世) 대대(代代)로다
 주인봉(主人峰)이 목성(木星)이라 목화성(木火星)이 완연(完然)하다
 남(南)으로 이십리(二十里)에 반룡희주(盤龍戲珠) 보기 좋다
 활룡(活龍)이 월복(越伏)하여 수백절(數百節)이 되었구
 입수(入首)의 특립화개(特立華蓋) 중중용호(重重龍虎) 회포(回抱)하고
 팔백연화(八百烟花) 분대상(粉黛象)에 회룡고조(回龍顧祖) 안(案)이 되니
 백자천손(百子千孫) 문무과(文武科)는 천만년(千萬年)을 부귀(富貴)하리
 산하(巽山下) 생룡(生龍) 끝에 복호형(伏虎形)이 생겼구나
 생룡안(生龍案)의 회두중(回頭中)에 일강파(一江波)가 있으니
 무림(茂林)에 참 용(龍)이 나고 산림(山林)에 호두(虎頭) 있다
 계방수구(癸方水口) 긴고(緊固)하니 무관천하(武冠天下) 하리로다
 주인(主人)을 보자 하면 수도성(水土姓)이 발복(發福)하리
 동(東)으로 돌아오니 금장(錦帳)에 갈 공이 있다
 장내장외(帳內帳外) 수절봉(數節峯)이 홀연(忽然) 낙어평지(落於平地)로다
 좌반(左畔)이 머리에 쓰고 변와격(變窩格)이 되었으니
 혈(穴) 머리 두어 마디 토성(土星)이 호위(護衛)하여
 청룡이 심히 넓어 삼중안(三重案)이 높았으며
 외거석(外巨石)이 속속기주(條條起走)35하여 혈재평두(穴在平頭) 고광처(高曠處)라
 주인성명(主人姓名) 알자 하면 금산곤괘(金山困卦) 자세히 보소
 동(東)편의 비금낙지(飛禽落地) 탁속안(啄粟案)이 되었구나
 임강룡(壬坎龍) 임건입수(壬乾入首) 운산(雲山)이 첩첩(疊疊)하여
 광야중(曠野中) 일괴방(一塊方)을 그 뉘라서 알아볼고
 영천(靈泉)이 위에 있어 주야(晝夜)로 흘러가니
 만세하(萬世下) 족진주(足珍珠)는 축하(丑下)에 고리 있고
 문중(門中)에 문채(文彩) 있다
 죽림동(竹林洞) 칠리허(七里許)에 오공형(蜈蚣形)36이 기묘(奇妙)하다
 동남해(東南海) 하룡주(蝦弄珠)는 삼성천기(三姓天基) 되었구나

옥녀등공(玉女騰空) 와우형(臥牛形)은 불원간(不遠間)에 있었구나
 그 밖에 육십사혈(六十四穴)은 용혈도(龍穴圖)를 찾아보소
 화순지경(和順地境) 넘어서니 구십혈(九十穴)이 생겼구나
 읍내전면(邑內前面) 옥녀형(玉女形)은 건해맥(乾亥脉)이 천기(天基)로다
 무등산(無等山) 서남(西南) 녹하(麓下)37 대장대좌(大將大坐) 발검형(拔劍形)은
 기고병기(旗鼓兵器)38 영송(迎送)하니 문천무만(文千武萬) 나리도다
 동십리(東十里) 옥녀무수(玉女舞袖)39 횡금안(橫琴案)이 되었구나
 십구인(十九人)40 근시(近侍)41되고 오대남행(五代南行) 나리로다
 방응형(放鷹形)과 복호형(伏虎形)은 정남자손(丁男子孫)42 발복(發福)하리
 서북(西北)의 와우형(臥牛形)은 적초안(積草案)이 되었구나
 조년(早年)43에 등과(登科)하여 일대승상(一代丞相) 하오리라
 서남(西南)의 반룡롱주(盤龍弄珠) 삼봉안(三峯案)이 다정(多情)하다
 양수(兩水)가 합류(合流)하여 자동류남(自東流南)44 하는구나
 칠대문과(七代文科) 삼대남행(三代南行) 수도산(水土山)이 함괘(咸卦)로다
 동남(東南)에 대해(大海) 있고서 비룡형(飛龍形) 생겨있다
 문장귀인(文章貴人) 날 것이오 작록공훈(爵祿功勳) 무궁(無窮)하다
 동남(東南)에 용사취회(龍蛇聚會) 수도산(水土山)이 감괘(坎卦)로다
 주인봉(主人峰) 찾아보니 오강성(吳姜姓)이 천기(天基)로다
 동남(東南)에 비봉귀소(飛鳳歸巢) 죽전안(竹田案)이 되었구나
 선인승학(仙人乘鶴) 하전형(下田形)은 고슬봉(鼓瑟峯)이 천기(天基)로다
 산양(山陽)에 달는 사람 목인성(木人姓)이 주인(主人)이라
 서오리(西五里) 황룡부주(黃龍負舟) 대강안(大江案)이 정녕(丁寧)하다
 주산(主山) 삼절하(三節下)에 용호양봉(龍虎兩峯) 탁립(卓立)45하니
 간봉(艮峯)이 원후(圓厚)하고 손신(巽辛)이 상대(相對)하니
 혈(穴)이 높아 혐(嫌)이 되니 양수류남(兩水流南) 분명(分明)하다
 문과재사(文科才士) 많이 나고 혈식일인(血食一人)46 나리로다
 서남(西南)에 모진 범이 사슴을 앞에 두고
 저 혼자 즐기면서 재조(才操)47를 자랑한다
 백화남행(白花南行) 삼인(三人) 나고 연대근신(連代近身) 나겠구나
 남흥동(南興洞) 십리허(十里許)에 봉(鳳) 하나 있었구나
 갈룡(渴龍)이 수(水)를 보고 대강(大江)으로 내려온다
 금산하(金山下) 북(北) 오리허(五里許)에 복주형(覆舟形) 또 있구나
 주인(主人)을 찾아보니 목산간괘(木山艮卦) 알아보소
 서남(西南)의 앵무새야 앵무봉충(鸚鵡逢虫) 귀(貴)하도다
 칠대문과(七代文科) 간간(間間)히 나고 오대공후(五代公侯) 하리로다
 경유좌(庚酉坐)에 간수귀을(艮水歸乙) 자동류남(自東流南) 하는구나
 그 건너 을진맥(乙辰脉)에 만세구구(萬世求久) 하겠구나
 만일에 그리치면 적신형제(賊臣兄弟) 나리로다

주인성체(主人星體) 짐작하니 화성(火姓)의 땅이로다
 무등산하(無等山下) 명처(明處)로다 황제봉조형(皇帝奉詔形)이라
 손유천로산(巽有天路山)이오 신유지신봉(辛有地神峯)이라
 안산(案山)이 오첩(五疊)이오 정방(丁方)에 황기(皇旗)라
 입와해사(立臥亥巳)하고 득파갑자진(得破甲子辰)이라
 혈재서안(穴在書案) 하니 재상군신(宰相群臣) 떠날소나
 혈주 α (穴主 α) 공봉(孔奉)하니 혈식부절(血食不絕) 하리라
 화순접계(和順接界) 복천지지(福川之地)48 달려드니 운중반월(雲中半月) 분명(分明)하다
 일 α (日 α) 창산원(蒼山遠)에 벽수(碧岫) 연하(烟霞) 심(深)이라
 촌촌(村村) 대폐성(大吠聲)49은 용왕지거동(龍王之舉動)이라
 산조(山鳥)는 흰흰(喧喧)하니50 어별(魚鱉)이 상약(相躍)이라
 혈재룡각(穴在龍角)에 무슨 신안(神眼) 찾아보라
 혈상(穴上)에 장병암(長屏岩)이오 혈하(穴下)에 쌍적사(雙笛砂)라
 건손와시(乾巽臥尸) 하면 팔장팔상(八將八相) 칠왕후(七王后)라
 혈주(穴主) 임김박(林金朴)이라 수파(水破) 축미(丑未)로다
 도화동(桃花洞)에서 밤을 지내고 창평지경(昌平地境) 넘어서서
 읍기(邑基)를 살펴보니 터가 비록 적으나
 산천(山川)이 명랑(明朗)하니 다출인재(多出人才) 하리로다
 명양남(鳴陽南) 오리허(五里許)에 옥녀등공(玉女登空) 줄을시고
 그 아래 풍취나대(風吹羅帶) 중간(中間)에 혈(穴)이로다
 잠깐 시(時)에 발복(發福)하여 오래가기 어렵도다
 그 밖에 있는 혈(穴)은 날날이 혈(欠)이 있다
 차십리(此十里) 늙은 용(龍)은 무흠대지(無欠大地) 되었구나
 정양동(定陽洞)에 장군출동(將軍出洞) 패검형(佩劍形) 더욱 좋다
 갈(渴)한 용(龍)이 물 마시고 걸음을 재촉하여
 머리를 땅에 박고 대강(大江) 가에 내려온다
 목성(木姓) 밑에 천기(天基) 보소 백자천손(百子千孫) 부귀(富貴)하리
 삼대명감(三代名監) 날 것이오 문과부절(文科不絕) 하리로다
 흥탄(歆嘆)51 불이(不已)하고 담양(潭陽)으로 작로(作路)하니
 구암상(九岩上) 대로변(大路邊)에 혈(穴) 찾기가 어렵구나
 건해룡(乾亥龍) 수절하(數節下) 갑묘입수(甲卯入首) 간작혈(艮作穴)에
 미와사사(微窩斜斜) 되었으니 어느 명안(明眼) 알아볼고
 만일 찾아 쓰게 되면 칠대문과(七代文科) 부귀(富貴)로다
 성산하(星山下) 십이봉(十二峯)에 팔대혈(八大穴)이 묻혔구나
 둘은 양택(陽宅)52이오 여섯은 음택(陰宅)53이라
 수구(水口)를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묻힌 혈(穴)은
 알기야 알지만은 재혈(裁穴)하기 쉬울소나
 장파산(長坡山) 올라가니 회룡형세(回龍形勢) 웅장(雄壯)하다

그 맥(脉)에 묻힌 혈(穴)이 다섯이 있겠구나
금채괘벽(金釵掛壁) 오공형(蜈蚣形)과 연소옥등(鸞巢玉燈) 갈마형(渴馬形)은
혈성(穴星)은 단정(端正)하나 불빈불부(不貧不富)뿐이로다
남(南)으로 내려가니 구름 속에 묻힌 달이
오운(五雲)이 영롱(玲瓏)하고 광채(光彩)가 찬란하다
신태룡(辛兌龍) 경일절(庚一節)에 경입수(庚入首) 곤좌간향(坤坐艮向)
간임수(艮壬水)가 귀진(歸震)하고 성문(城門) 해(亥)에 있고
주작(朱雀)은 재정(在丁)하고 병오봉(丙午峯)은 고수(高秀)하니
삼봉하(三峰下) 대도상(大道上)에 완연(完然)히 혈(穴)이 누웠구나
백자천손(百子千孫) 하려니와 부귀재상(富貴宰相) 부절(不絕)하리
동십리(東十里) 내려오니 금귀형(金龜形)이 또 있구나

전후(前後)에 귀인(貴人) 있고 주안(主案)이 유정(有情)하다
인산(人山)은 손(巽)에 있고 봉령(蜂峯)은 좌(左)에 있다
인자로상(人字路上) 칠봉하(七峰下)에 간행삼절(艮行三節) 임기혈(壬氣穴)은
임향(壬向)이 상대(相對)하고 갑을(甲乙)이 귀미(歸未)하니
전산(前山)이 나열(羅列)하고 삼양(三陽)이 구조(俱照)54한데
병정룡(丙丁龍)이 손좌건향(巽坐乾向) 곤태수(坤兌水)가 귀갑(歸甲)하니
삼성오현(三聖五賢) 날 것이오 출신삼태(出身三台) 하리로다
주인(主人)을 보려하니 말하기 어렵도다
거지성관(居之姓貫) 짐작하니 해돋이인(海島之人) 되리로다
그 외(外)에 남은 혈(穴)은 어이 다 말할소냐
그리저리 구경(求景)하고 남평(南平)으로 넘어오니
내곡남(乃谷南)의 반월형(半月形)은 삼태안(三台案)이 분명(分明)하다
명산(明山)이 내조(來朝)하니 천기(天基)가 되었도다
서산(西山)의 와우하전(臥牛下田) 청초(靑艸)가 없는 곳에
무엇을 보려하고 밭가에 누웠는고
그 위에 척지금채(擲地金釵) 옥녀(玉女) 보고 반만 웃네
이마산(二馬山)의 오공형(蜈蚣形)은 당대속발(當代速發)뿐이로다
영평(永平) 십오리(十五里)에 황사출초(黃蛇出草) 숨었구나
전북(田北)의 창룡출동(蒼龍出洞) 양택(陽宅)으로 내려왔다
동야(東野)의 장군출동(將軍出洞) 호거석하(虎距石下) 있었구나
서북(西北)의 갈룡형(渴龍形)은 물을 찾아 오는구나
대산하(大山下) 축간맥(丑艮脈)은 아룡롱주(兒龍弄珠) 생겼구나
문과칠대(文科七代) 날 것이오 귀무적세(貴無敵世) 하리로다
주인봉(主人峰) 찾아보니 목화성(木火姓)이 임자로다
혈재원훈(穴在圓暈) 사경(斜鉗) 있되 그 뉘라서 찾아보리
그 외(外)에 있는 혈(穴)은 불과사대(不過四代) 하리로다

죽장마혜(竹杖麻鞋)55 바쁜 걸음 광산(光山)에 올라오니
옥녀봉하(玉女峰下) 노인정혈(老人頂穴) 자좌오향(子坐午向) 암석상(岩石上)에
세로(細路)를 옆에 놓고 남(南)56모르게 숨었다
남십리(西十里) 슬산하(瑟山下)에 금오상수(金鰲上水) 생겼구나
뒤에는 석봉(石峯) 있고 앞에는 건천(乾泉) 있다
용지후(用之后) 십팔년(十八年)에 백자천손(百子千孫) 하리로다
서남(西南)에 옥녀산화(玉女散花) 군선(群仙)을 안(案)을 삼고
금(金)비녀 손에 잡고 공연(空然)히 춤을 춘다
이 산(山) 주인(主人) 보려하니 목산(木山)이 난괘(離卦)로다
동오리(東五里) 비룡형(飛龍形)은 삼지안(三池案)이 다정(多情)하다
동(東)에는 용(龍)이 있고 북(北)에는 말(馬)이 있다
이 혈(穴) 찾아 보게 되면 무가지보(無價之寶)57 되오리라
남삼리(南三里)에 군신봉조(君臣奉朝) 명현군자(名賢君子) 나겠구나
전후좌우(前後左右) 둘러보니 조각 조각 금(金) 이로다
문과칠대(文科七代) 하온 후(后)에 혈식지인(血食之人) 나겠구나
남삼리(南三里) 회룡은산(回龍隱山) 토산정괘(土山鼎卦) 보았어라
사척하(四尺下) 백토색(白土色)에 샘이 있을 터이니
돌을 놓고 쓰게 되면 칠백문과(七百文科) 백자천손(百子千孫)
구대진사(九代進士) 남행증직(南行贈職) 말로는 다 못하리
용호(龍虎)가 중첩(重疊)하니 묘수(卯水)가 귀정(歸丁)이라
동(東)에 있는 선녀무수(仙女舞袖) 조천횡적(朝天橫笛) 안(案)을 삼아
중중입석(重重立石) 혈진(穴唇)되니 대소과경(大小科慶) 흔히 나리
이 산(山) 주인(主人) 그 누구런고 목산(木山)이 소축괘(小畜卦)라
동십리(東十里) 행주형(行舟形)은 쌍노(雙檣)로 안(案)을 하니
별(別)로 좋은 것이 불빈불부(不貧不富) 하리로다
서북(西北)에 용사취회(龍蛇聚會) 혈재요뇌(穴在凹腦) 하였구나
대강(大江)으로 파(破)를 하니 판서이대(判書二代) 나겠구나
그 안에 회룡고조(回龍顧祖) 대야중(大野中)에 독산(獨山)58이오
용호(龍虎)로 회포(回抱)하고 좌우선익(左右蟬翼) 생겼구나
문무삼대(文武三代) 하려니와 부귀무쌍(富貴無雙) 하리로다
경양팔리(景陽八里) 원봉하(圓峰下)에 암봉(鳳)이 알을 품고
대숲을 의지하여 말 없이 숨었구나
이것을 찾아보니 양택(陽宅)이 생겼구나
서대강북변(西大江北邊) 정산북(鎗山北)에 금맹하수(金甃下水) 불작시면
문과일인(文科一人) 증직삼대(贈職三代) 명령계사(螟蛉繼祀) 하온 후(后)에야
백자천손(百子千孫) 부귀(富貴)하고 문인재사(文人才士) 나리로다
이 주인(主人) 성명(姓名) 보니 수토산(水土山)이 수괘(隨卦)로다
북(北)으로 올라가니 갈마음수(渴馬飲水) 하고

큰 길을 앞에 놓고 안장으로 몸을 싸고
 언연히 누웠으니 알아볼 이 누가 있을고
 용두(龍頭)에는 대로(大路)있고 호두(虎頭)에는 샘이로다
 삼대후(三代后)에 절도사(節度使)와 자손천억(子孫千億) 되오리라
 주인(主人)을 알자하면 화산(火山)의 여괘(旅卦) 보았어라
 혈재중정(穴在中正) 자당처(自當處)라 불편불의(不偏不倚) 하였도다
 축입수(丑入首) 간좌원(艮坐原)에 경유수(庚酉水)가 귀정(歸丁)한데
 서(西)쪽으로 돌아보니 노옹(老翁)이 낚시 넣고
 동남(東南) 대야중(大野中)에 삼어품자(三魚品字) 찾는구나
 용지구년(用之九年) 초발(初發)하여 전지무궁(傳之無窮) 하오리라
 서산(西山)에 앉은 옥녀(玉女) 머리 풀어 몸에 감고
 치마 벗어 산(山)에 걸고 비(比)녀를 가로로 잡고
 시냇물을 의지하여 하염없이 섰노라니
 남산(南山)에 있는 선인(仙人) 옥녀(玉女) 보고 춤을 춘다
 혈심오척(穴深五尺) 파게 되면 불석일쌍(佛石一雙) 있겠구나
 상(傷)치 말고 쓰게 되면 간간(間間)히 용사(勇士) 나리로다
 삼각산(三角山) 서북록(西北麓)에 양대혈(兩大穴)이 또 있구나
 하나는 회룡고조(回龍顧祖)요 하나는 아독실모(兒犢失母)라
 죽어가는 사람 있어 어렵게 살려내면
 이 혈(穴) 찾아 줄 것이니 적덕수선(積德修善) 하였어라
 삼대증직(三代贈職) 먼저 나고 문무겸전(文武兼全) 하리로다
 남악(南岳)에 약마희적(躍馬戲鞞) 선빈안(仙賓案)이 생겼구나
 중중용호(重重龍虎) 회포(回抱)하니 정득술파(丁得戌破) 분명(分明)하다
 일품부귀(一品富貴) 누대진사(累代進士) 백자천손(百子千孫) 하겠구나
 거지성명(居地姓名) 알자하면 화산겸괘(火山謙卦) 해득(解得)하소
 동십리(東十里) 문장휘필(文章揮筆) 옥연안(玉硯案)의 대천변(大川邊)에
 천기(天基) 하나 생겼으니 부귀겸전(富貴兼全) 하오리라
 광산읍(光山邑)을 찾아드니 비봉포란(飛鳳抱卵) 분명(分明)하다
 혈재우간(穴在羽間)이라 축인방(丑寅方)의 오동봉(梧桐峯)은
 득수(得水)는 진득미파(辰得未破) 무좌진향(戌坐辰向) 분명(分明)하다
 육대부명(六代富名) 부절(不絕)이라 혈주(穴主)는 한김(韓金)이라
 남십리(南十里) 내(內)에 평사낙안(平沙落雁) 분명(分明)하다
 평사낙안(平沙落雁) 찾아 드니 동정호상(洞庭湖上) 노화(蘆花)로다
 사평(沙平)인들 제일지(第一地)는 백구실우(白鷗失友) 허송룡(虛送龍)이라
 노화산봉(蘆花山峰) 수(秀)하니 사평(沙平)이 입방(入方)이로다
 축좌오향(丑坐午向) 좌향(坐向) 좋고 진득미파(辰得未破) 더욱 좋다
 이대(二代) 장상(將相)이오 ∞적(∞迹) 방어사(防禦使)로다
 십이대(十二代) 부명(富名)이니 이창복(李昌福)이 주일지(主一地)라

남록(南麓) 십오리(十五里)에 금맹몰니(金甓沒泥) 거기 있다
대로지상(大路之上)이오 존암지하(存岩之下)라
수구(水口)에 삼봉(三峰)은 승상위遺(承相衛遺) 길에 있고
종기사언(從其師言) 좌향(坐向)이로다
청룡(靑龍) 삼절봉(三節峯)은 삼대승상(三代承相) 갈 바 없다
무등산(無等山) 올라서서 전후좌우(前後左右) 살펴보니
서(西)쪽으로 내려와서 금당산(金堂山)이 생겼구나
목성하(木星下) 대장형체(大將形體) 혈재검리(穴在鉗裡) 하였도다
혈전(穴前)에 올라서서 사방(四方)을 둘러보니
기고병장(旗鼓兵帳) 벌려 있는데 복두모홀(幞頭帽笏) 분명(分明)하다
병정손신(丙丁巽辛) 나립(羅立)하고 임기(壬氣)가 해(亥)로 오니
삼월내(三月內)에 속발(速發)하여 천하명장(天下名將) 나리로다
주인봉(主人峰)을 자세히 보니 수목산(水木山)이 감괘(坎卦)로다
임강건해(壬坎乾亥) 십절하(十節下)에 음양택(陰陽宅)이 무수(無數)하다
수화성(水火姓)이 대발후(大發后)에 토성(土姓)이 주인(主人) 되리
갑묘맥(甲卯脈) 팔절하(八節下)에 구이산(狗頭山)을 뒤에 놓고
범바우가 옆에 서며 언연히 앉았으니
평탄(平坦)에 묻힌 혈(穴)은 금수성(金水姓)이 주인(主人)이라
그 위로 올라오니 대소혈(大小穴)이 허다(許多)하다
백마강(白馬江) 건너서니 양택(陽宅)이 또 있구나
큰 들 앞에 놓고 태극(太極)이 단정(端正)하니
명현재사(名賢才士) 간간(間間)히 나고 부귀누대(富貴累代) 하겠구나
거름을 재촉하여 어두산(魚頭山) 올라보니
인간(寅艮)으로 과협(過峽)하고 축인(丑寅)으로 기두(起頭)하니
평지음사(平地陰砂) 결인처(結咽處)에 마디마디 기묘(奇妙)하다
용미기처(龍未起處) 선발(先落)하여 무공단좌(武公端坐) 생겼구나
병오(丙午)로 낙맥(落脉)하여 정일정(丁一節) 경이절(庚二節)에
토성태극(土星太極) 원후(圓厚)하여 비습처(卑濕處)에 혈(穴) 있으니
구침(毬簷)이 분명(分明)하고 합금(合襟)이 단묘(端妙)하다
일대수(一帶水)가 묘당(朝堂)하니 속발장원(速發長遠) 하겠구나
이 주인(主人) 보려하니 목화산(木火山)이 이괘(離卦)로다
상정(上頂)에 올라가니 현침혈(縣針穴)이 되었구나
혈후(穴后)에 석각(石角) 있어 위급척박(危急脊薄)59 하였으니
속발(速發)은 비록하나 불과삼대(不過三代) 하리로다
용혈좌(龍穴坐)를 살펴보니 해좌(亥坐)에 손파(巽破)로다
주인형세(主人形勢) 자세히 보니 수금산(水金山)이 정괘(鼎卦)로다
을진맥(乙辰脉)이 회룡(回龍)한데 혈(穴) 하나 생겼구나
자손(子孫)은 많지 않으나 향화부절(香火不絕) 하리로다

와굴(窩窟) 속에 있는 혈(穴)을 그 뒤라서 알아보리
남록(南麓) 굽어보니 삼사혈(三四穴)이 또 있구나
자손(子孫)은 많다하나 귀(貴)하다 할 것 없었도다
초절(初節)이 미진(未盡)해야 다시금 올라가니
쓰기야 쓰지만은 성패다단(成敗多端) 하리로다
비봉형(飛鳳形)과 옥녀형(玉女形)은 불원지(不遠地)에 숨었구나
북(北)으로 올라가니 음양택(陰陽宅)이 무수(無數)하다
보디산(山) 대치남록(大峙南麓)에 양택(陽宅)이 또 있구나
내외사각(內外砂角) 회포(回抱)한데 혈하(穴下)의 원천(源泉)물이
곤간(坤艮)으로 돌러가니 수구장쇄(水口藏鎖) 견밀(堅密)하니
중국승상(中國丞相) 한 후(后)에 억만자손(億萬子孫) 부절(不絕)하리
천금사(千金砂)에 길이 나면 허명(虛名)만 전(傳)하리라
금채괘벽(金釵掛壁) 옥류안(玉梳案)은 북유곡(北榆谷)에 있느니라
독전삼대(獨傳三代) 하온 후(后)에 내외자손(內外子孫)이 번성(蕃盛)하여
백자천손(百子千孫) 하려니와 나라 권세 잡으리라
이 주인(主人)을 자세히 보니 화성(火姓)이 완연(完然)하다
대치상(大峙上) 대군형(大軍形)은 흠 없이 대지(大地)로다
산세(山勢)는 중중(重重)하고 군사(軍士)는 떼떼로 서니
태극(太極)에 돌(突)이 있고 그 아래 굴(窟)로 되니
좌향(坐向)을 을진손(乙辰巽) 보려하면 사동궁(巳同宮)이라
문무대장(文武大將) 수백인(數百人)을 말하여 무엇하리
그리저리 두류하여 장성지경(長城地境) 넘어서니
해수오산(海水鰲山) 이것이라 산천(山川)이 회조(會朝)한데
명랑(明朗)한 음양택(陰陽宅)이 촌보간(寸步間)60에 많고 많다
반등산(半登山)61 대간맥(大幹脉)이 산수배합(山水配合) 하였구나
남(南)으로 이십리(二十里)에 용사취회(龍巳聚會) 천기(天基)로다
동(東)으로 바라보니 보검출감(寶劍出匣) 생겼구나
봉산(鳳山) 일지맥(一枝脉)이 역수(逆水)로 돌아서니
자손(子孫)의 문과(文科)는 대대(代代)마다 부절(不絕)하리
이 산(山) 주인(主人) 오르거든 토산간괘(土山艮卦) 자세히 보소
남십리(南十里) 금채형(金釵形)은 용호(龍虎)가 회포(回抱)하고
입수상(入首上)에 누은 돌이 연연히 웅장(雄壯)하다
문과일인(文科一人) 청백삼인(清白三人) 부귀(富貴)도 장원(長遠)하다
현무(玄武)가 특립(特立)한데 삼수(三水)가 합류(合流)하며
산수정신(山水精神) 살펴보니 동(東)으로 오는 물이
서남(西南)으로 흘러가니 알아보기 쉬우리라
잡아 상(上)에 올라보니 나는 용(龍)이 구름 타고
행맥십절(行脉十節) 병정룡(丙丁龍)에 용호(龍虎) 없이 독행(獨行)하여

끓어지다가 다시 날아서 와겸(窩鉗)으로 개구(開口)하니
안산(案山)의 창고봉(倉庫峰)과 큰 길 밖의 명당(明堂) 보소
혈심오척(穴深五尺) 파게 되면 적백황토(赤白黃土) 나올 것이니
삼사대(三四代) 지낸 후(后)에 부귀겸전(富貴兼全) 하오리라
이 주인(主人) 찾아보니 화목산(火木山)이 이괘(離卦)로다
그 안에 누운 용(龍)이 청운(靑雲)을 잡아 타고
갈 곳이 없는 양은 구름 속에 혈(穴)이 있다
옥녀봉하(玉女峰下) 굽어보니 선인(仙人)이 춤을 춘다
오대진사(五代進士) 할 것이오 일대상서(一代尙書) 나리로다
주인성명(主人姓名) 알자하면 목산진괘(木山晉卦) 자세히 보소
태봉하(台峰下) 옆진 범이 면견안(眠犬案)을 하고 있다
명당(明堂) 앞에 물이 나니 천기(天基)도 또 있구나
손룡하(巽龍下)에 용(龍) 있나니 여의주(如意珠)를 다투는데
문무겸전(文武兼全) 하는 중(中)에 위치이품(位至二品) 되오리라
기암하(岐岩下)에 칼이 있어 장군(將軍) 찾아 가는구나
먼저는 가난하고 용사일인(勇士一人) 날 것이오
칼을 찾아 하게 되면 장군(將軍) 말을 찾아 보소
백암(白岩)은 수구(水口)되고 거북치(峙)는 안(案)이로다
그 아래 천기(天基) 나면 귀하기는 돌도 없다
노령하(蘆峯下) 광대암(廣大岩)에 베 짜는 저 옥녀(玉女)야
베랑은 아니 짜고 배부(配夫)62 먼저 찾는구나
이 혈(穴)을 얻어 쓰면 미색만조(美色滿朝) 하리로다
남천하(南川下) 오정맥(午丁脉)에 집 찾는 저 봉황(鳳凰)은
대 열매 입에 물고 오동(梧桐) 가지 찾는구나
수구득파(水口得破) 헤아리니 간방수(艮方水)가 을(乙)로 가니
문과삼대(文科三代) 연출(連出)하고 한림청직(翰林淸職) 나리로다
이 봉(鳳)을 보려거든 당동(堂洞)을 물어보소
진원남(珍原南) 십오리(十五里)에 구름 속에 묻힌 달이
양택(陽宅)이 생겼으니 수금성(水金星)이 발흥(發興)하니
간태금성(艮兌金星) 수삼절(數三節)에 양택(陽宅) 하나 또 있구나
명당(明堂)이 광활(廣闊)하여 대강(大江)이 돌렀으니
백자천손(百子千孫) 대부귀(大富貴)는 말할 수가 다 없도다
주인봉(主人峯)을 살펴보니 삼성대발(三姓大發) 하리로다
대대(代代) 진사(進士) 나고 남행(南行) 벼슬 흔히 나오리
수성(水姓)과 화성인(火姓人)은 초발자손(初發子孫) 비록하나
이백년(二百年) 내외간(內外間)에 무후(無后)63가 흔히 되리
진기(辰氣)를 많이 타면 서손(庶孫)이 번성(蕃盛)하리
그나마 이 터 기운(氣運) 여천지(與天地)로 동로(同老)하리

구신치(狗腎峙) 과협(過峽)하고 쌍귀추성(雙鬼樞星) 놓은 후(后)에
 사장봉(師丈峯) 뒤에 두고 글 읽는 저 선인(仙人)의
 대학리(大學里)를 옆에 놓으매 안(案)상을 높이 놓고
 엄슬단좌(端坐) 하였으니 혈재유중(穴在乳中) 분명(分明)하다
 대소과(大小科) 흔히 나고 문장재사(文章才士) 나리로다
 거기서 바라보니 삼손룡(三巽龍)이 생겼구나
 병오곤(丙午坤) 칠봉하(七峯下)에 열두 마디 손기(巽氣)로다
 옥녀봉하(玉女峯下) 맥(脉)이 나니 우두암(牛頭岩)이 거기로다
 갑묘(甲卯)로 삼사(三四) 마디 을진(乙辰)으로 개장(開帳)하니
 장중귀인(帳中貴人) 이것이라 어이 다 말할소냐
 거기서 결인(結姻)하고 갑을(甲乙)로 내려오니
 규하(圭下) 삼암(三岩) 놓으니 태극형체(太極形體) 더욱 좋다
 와중(窩中)에 한 기운(氣運)이 석곽(石槨)이 나겠구나
 본신(本身)에 청룡(靑龍) 생겨 벽수를 하고서나
 안산(案山)의 천문(天門)이야 질마재64를 넘어 있다
 명당(明堂)은 취속(聚束)하고 수구한문(水口捍門) 삼잡(三匝)이라
 사산(四山)이 공조(拱朝)하고 큰 냇물이 돌렀으니
 석토상잡(石土相雜) 숨은 혈(穴)이 옥녀(玉女)가 적실65하다
 천장지비(天藏地秘)66 하는 중(中)에 귀신(鬼神)이 지키고 있다
 칠대한림(七大翰林) 일대승상(一代丞相) 오대왕비(五大王妃) 나겠구나
 백자천손(百子千孫) 억만년(億萬年)에 종묘배향(宗廟配享) 하시리라
 주인봉(主人峰)이 목성(木星)이라 수화성(水火姓)을 얻으리라
 중손룡(中巽龍) 석중혈(石中穴)은 재화(才華)는 없었으나
 혈성(穴星)이 견고(堅固)하고 주안(主案)이 단정(端正)하니
 부귀(富貴)는 없거니와 백자천손(百子千孫) 하리로다
 이 주인(主人)을 사려보니 화성(火姓)이 정연(定然)하다
 소손룡(小巽龍) 건너가니 기기묘묘(奇奇妙妙) 더욱 좋다
 내팔거팔(來八去八) 기룡(騎龍) 위에 화성(火星)이 원후(圓厚)하다
 금수병장(錦繡屏帳) 돌렀으니 부귀무쌍(富貴無雙) 하리로다
 만일에 얻어 쓰면 만세영화(萬世榮華) 하오리라
 이 산(山) 주인(主人) 살펴보니 구월산(九月山)의 자손(子孫)이라
 초발후(初發后)에 팔형제(八兄弟)가 동방급제(同榜及第) 하리로다
 수구(水口)로 내려오니 용두상(龍頭上)에 혈(穴)이로다
 대와중(大窩中)에 혈(穴)이 있어 남 모르게 숨었구나
 부귀(富貴)도 많거니와 수백대(數百代)를 장구(長久)하리
 그 위에 올라가니 흰 학(鶴)이 날개 펴고
 청전(靑田)에 홀로 앉아 신선재조(神仙才操) 찾는구나
 만산(萬山)이 준고(峻高)하니 석중토혈(石中土穴) 분명(分明)하다

반석동(盤石洞) 들려가니 자는 범이 또 있구나
반석(盤石)으로 몸을 싸니 이대후인(以待后人) 하리로다
내외손(內外孫)이 구발(俱發)하여 천년향화(千年香火) 하리로다
압 ∞ 동(鴨 ∞ 洞) 역수상(逆水上)에 상하혈(上下穴)이 다정(多情)하다
질마재 올라서니 풍취나대(風吹羅帶) 와우형(臥牛形)은
마디마디 굴곡(屈曲)하여 일령간(一峯間)에 생겼구나
그러나 누운 소는 목복성(木卜姓)이 차지하리
백암(白岩)으로 올라가니 건해입수(乾亥入首) 갈바위
삼봉(峯)으로 함께 서서 나를 보고 반기는듯
날날이 말하고자 하니 팔대혈(八大穴)이 거기 있다
건양리(乾陽里)로 넘어가니 오동지(梧桐枝)에 우는 봉(鳳)이
역수(逆水)로 안(案)을 삼고 삼개(三箇)바위 앞에 놓고
단전(丹田)을 의지하여 무엇을 찾는구나
주인봉(主人峰)을 자세(仔細)히 보니 화성(火姓)의 물건(物件)이라

그리로 내려가니 다소혈(多小穴)이 무수(無數)하다
산수(山水) 배합처(配合處)라 음양택(陰陽宅)이 없을소냐
숙조투림(宿鳥投林)67하는 곳에 맹호출림(猛虎出林) 하는구나
작동(鵲洞)은 앞에 있고 그 바위는 수구(水口)로다
이 혈(穴) 찾아 쓰게 되면 대부문과(大富文科) 누대(累代)하리
거지성관(居地姓貫) 보려하니 황주인(黃州人)의 땅이로다
백암산(白岩山) 전후좌우(前後左右) 편편금(片片金)이 누웠도다
혈성(穴星)을 바라보고 오복동(五福洞) 들려가니
정미(丁未)로 역두(逆頭)하니 천인위귀(賤人爲貴) 하겠구나
감계방(坎癸方)의 두 길 물이 바위 사이에서 솟아나니
음행(淫行)이 간간(間間)히 나되 대소과경(大小科慶) 연면(連綿)68하리
일목일각(一目一脚)69 자손(子孫) 나면 명전천추(名傳千秋) 하리로다
주인봉(主人峰)이 금구괘(金姤卦)라 행주인(幸州人)의 땅이로다
진원산(珍原山) 전후좌우(前後左右) 십육혈(十六穴)이 숨었구나
허다한 맥기혈(脉氣穴)을 날날이 말할소냐
서(西)쪽으로 내려오니 옥녀단좌(玉女端坐) 보기 좋다
음양택(陰陽宅)이 함께 나니 누대근신(累代近臣) 날 것이오
천봉대강(千峯大江) 들렀으니 혈식군자(血食君子) 나리로다
그 위에 선인무수(仙人舞袖) 이대상서(二代尙書) 나겠구나
창룡출운(蒼龍出雲) 자봉형(雌鳳形)은 위지삼품(位至三品) 하였어라
오산사면(鰲山四面) 다 가보니 우리나라 낙양(洛陽)이라
산천(山川)이 수려(秀麗)하니 명승지지(名勝之地) 되었어라
혈(穴) 하나를 얻어 쓰면 그 밖의 십이혈(十二穴)은

불원간(不遠間)에 생기나니 절로 다 차지하리
오육년(五六年)을 산(山)에 올라 이리저리 다니다가
이 땅 산수(山水) 구경(求景)하니 마음이 울울하다
음택(陰宅)이야 많건마는 양택(陽宅)이야 흔할소나
백산반등(栢山半登) 양대맥(兩大脉)은 양택(陽宅)이 더욱 많다
내 나이 오십(五十)이라 보던 중 제일(第一)이라
운수가 멀었으면 이런 산수(山水) 바랄소나
어와 내 일이야 다 못될 일이로다
울우치를 구경(求景)하고 고창(高敞)으로 넘어가니
다소간(多小間)에 음양택(陰陽宅)이 역수(逆水)라 기묘(奇妙)하다
용취팔각(龍聚八角) 방마형(放馬形)은 흠(欠) 없이 생겼구나
마형(馬形)은 보기 쉬우나 용(龍)으로는 어려워라
반월형(半月形)과 복호형(伏虎形)은 장성지경(長城地境) 불원(不遠)하다
고을도 적었거니와 산수(山水)도 적었어라
그 길로 바로 내려와 무장(茂長)으로 작로(作路)하니
장사산(長砂山) 일지맥(一枝脉)은 가관지물(可觀之物) 많구나
장상맥(將相脉)이 없었으니 파벽하기 어려워라
다소간(多小間)에 있는 것이 보자손(保子孫) 이이(而已)로다70
선운산상(禪雲山上) 상정(上頂)에 혈(穴) 하나 생겼으니
이대문과(二代文科) 하려니와 삼대(三代) 가기 어렵도다
동호변(東湖邊) 축간맥(丑艮脉)의 고기 잡는 어옹(魚翁)들이
선동(仙童)의 노래 듣고 고기 낚시 잊었도다
여기를 찾아 쓰면 만세영화(萬世榮華) 하려마는
모래가에 묻혔으니 속안(俗眼)으로 어렵도다
바로 내려올 즈음에 길가에 있는 것이
용(龍)도 아니요 범도 아니나 겨우 쓸 만하겠구나
해삼절(亥三節) 건입수(乾入首)에 죽사동(竹師洞) 촌전(村前)이라
자세히 가려서 쓰게 되면 백자천손(百子千孫) 하리로다
허허 탄식(歎息)한 후(后)에 영광지경(靈光地境) 넘어서니
북십리(北十里) 양수간(兩水間)에 여섯 용(龍)이 다투는데
여의주(如意珠)가 셋이 되니 혈(穴) 찾기가 어려워라
용장혈줄(龍長穴拙) 하여 합금처(合襟處)에 겸(鉗)이 나니
평지음사(平地陰砂) 회포(回抱)하니 어느 명안(明眼) 알아보리
이 산(山) 주인(主人) 그 누구인고 수화성(水火姓)이 대발(大發)하리
읍내(邑內)에 들어와서 좌우(左右)를 살펴보니
동서남북(東西南北) 사방중(四方中)에 서남산수(西南山水) 더욱 좋다
서오리(西五里) 화접심향(花蝶尋香) 당대(當代)에 속발(速發)하여
문무과(文武科)도 많거니와 대대호부(代代豪富) 하리로다

축태목성(丑兌木星) 정토혈(正土穴)에 경유수(庚酉水)가 동(東)에 가니
찾기도 쉽거니와 알아볼 이 누가 있을고
북이십리(北二十里) 대과협(大過峽)에 자웅삼혈(雌雄三穴) 더욱 좋다
자기목성(紫氣木星) 삼절하(三節下)에 평지결인(平地結咽) 자주 하니
한 가지는 서(西)에 가서 용사취회(龍巳聚會) 되었구나
혈후(穴后)에 천재토성(天財土星) 태산(泰山)이 생겨있다
사대승상(四代丞相) 칠대왕비(七代王妃) 백자천손(百子千孫) 문무과(文武科)를
대대(代代)로 할 것이니 저마다 얻을소냐
주인봉(主人峰)을 자세히 보니 목토산(木土山)에 혁괘(革卦)로다
동령치(東峯峙)를 넘어가니 와우형(臥牛形) 천기(天基)로다
일대해수(一隊海水) 조당(朝堂)하니 재입부고(財入府庫) 되겠구나
오백년(五百年) 지나가면 명현군자(名賢君子) 나리로다
병정방(丙丁方)에 통고(通高)하니 대대인물(代代人物) 끊어질까
화개금성(華蓋金星) 주인봉(主人峰)은 오성구발(五姓俱發) 하리로다
장상치(將相峙) 결인(結咽)하고 은산봉(隱山峯)을 이리 드니
용호(龍虎) 없이 생긴 혈(穴)이 아룡도강(兒龍渡江) 정녕(丁寧)하다
운사(雲砂)가 벌어져 있고 병정(丙丁)이 중중(重重)하니
만종록(萬鍾祿)71을 먹을 부귀(富貴) 입으로는 다 못하리
아름다운 혈성(穴星)이야 눈으로 다 보겠다
더욱 귀(貴)하다 양평지재(良平之才) 대불핍절(代不乏絕) 하리로다
이러므로 삼기중(三奇中)에 제일(第一)이 되었구나
혈전(穴前)에 묘방(卯方) 물이 대해(大海)로 돌아가니
제 임자 못 만나면 열 번 쓰되 다 파내리라
그리저리 구경하고 선징(仙津)나루 건너가니
해중(海中)의 높은 산(山)이 구수산(九岵山)이 가깝구나
그 산(山)에 올라가니 고기 잡는 어옹(漁翁)들은
낙숫대를 드리우고 그 턱을 자주 본다
당대발복(當代發福) 장구(長久)하니 향화부절(香火不絕) 하겠구나
주인(主人) 찾아보니 금수산(金水山)이 손괘(損卦)로다
전후(前後)에 있는 혈(穴)이 불빈불부(不貧不富) 하였어라
장두산(長頭山) 돌아서니 해변(海邊)에 대와(大窩) 있어
상하(上下)에 생겼으니 화성(火姓)이 주인(主人)이라
봉산(鳳山)의 봉혈(鳳穴) 보고 고소(鹽所)의 그 혈(穴) 보니
보자손(保子孫)은 비록하나 대소과경(大小科慶) 없었구나
그 밖에는 구경 없어 독목시(獨木柿)에 들어서니
원생(猿猩)이72 하나 있어 과실을 품에 안고
가을바람 의지하여 둥글게 앉았구나
곤신맥(坤申脉) 경입수(庚入首)에 간수(艮水)가 을(乙)에 드니

명당(明堂)이 광활(廣闊)하니 제 격을 안 잃었다
 부귀(富貴)도 많거니와 자손(子孫)이 만억(萬億)이라
 태금성(兌金星) 주인(主人)이라 대대영화(代代榮華) 하오리라
 성명원근(姓名遠近) 두 가지 수화산(水火山)에 겸괘(謙卦)로다
 그 사이에 수다혈(數多穴)은 다 말하기 어렵구나
 거문고 타는 옥녀(玉女) 포슬애(抱瑟厓)가 완연(完全)하다
 고(鼓) 머리가 멀었으니 혈락평지(穴落平地) 조습처(潮濕處)라
 달 밝고 물 맑으면 북소리 나리로다
 아마도 이 한 혈(穴)은 화성(火姓)이 주인(主人)이라
 죽장(竹杖)으로 산(山)을 치니 삼각산(三角山)이 여기 또 있다
 산정(山頂)을 올라보니 경태건해맥(庚兌乾亥脉)이로다
 사절하(四節下)에 원훈형체(圓暈形體) 혈재와중(穴在窩中) 하였구나
 비문(碑文)을 상고하니 권씨묘(權氏墓)가 지켰구나
 말 물을 곳이 전혀 없어 그저 가기 섭섭하여
 필낭(筆囊)의 붓 내어 이 산(山) 운로(運路) 기록하여
 혈(穴) 가운데 묻어 놓고 흔연(欣然)히 돌아서니
 일후(日後)에 유식군자(有識君子) 과히 꾸중 하지마라
 그 탄식(嘆息)을 불이(不已)하고 생길로 내려오니
 그 가운데 묻힌 혈(穴)이 적지 아니 하겠구나
 수구원봉(水口圓峰) 불작시면 명철지인(明哲之人) 많이 나리
 그 길로 구경하여 배례치(拜禮峙) 올라서니
 산(山) 다하고 물 다하는데 배기상영(拜起相迎) 더욱 좋다
 인간맥(寅艮脉)에 신무파(辛戌破)는 세속(世俗) 사람 어이 알리
 용장혈줄(龍長穴拙)하여 겸(鉗) 속의 와(窩)가 되니
 속발장원(速發長遠) 이 큰 혈(穴)은 그 뉘라서 알아 볼고
 천마(天馬)는 앞에 있고 기고(旗鼓)는 위에 있다
 오로봉(五老峰)에 오는 기운 이밖에 다시 없다
 자손복록(子孫福祿) 많은 것이 이 고을의 둘째로다
 주인봉(主人峯)을 자세히 보니 화산려괘(火山旅卦) 해득(解得)하소
 그 산(山)을 넘어서니 임자 없는 저 망아지
 마구를 곁에 두고 갈 데를 전혀 몰라
 말독바위 바라보고 누습한 데 누웠구나
 이 혈(穴)을 찾자 하니 주인(主人) 없어 어려워라
 만일에 얻어 쓰면 문천무만(文千武萬) 날 것이오
 명망(名望) 있는 자손(子孫) 있어 백대유전(百代有傳) 하리로다 그 길로 내려오니 창룡출운(蒼龍出雲)
 기묘(奇妙)하다 갑묘을진(甲卯乙辰) 손입수(巽入首)에 경수(庚水)가 계(癸)로 간다 사산(四山)이 공조
 (拱朝)하여 주산(珠山)이 수일구(水一口)로다 대소과경(大小科慶) 대부귀(大富貴)는 대불핍절(代不乏
 絶) 하겠구나 당산동(堂山洞) 들어서니 대소혈(大小穴)이 많도다 금채괘벽(金釵掛壁) 오공형(蜈蚣形)과

선인무수(仙人舞袖) 쌍룡출수(雙龍出水) 십리내(十里內)에 생겼으니 목화성(木火姓)이 지키리라 갑산동남(甲山東南) 둘러보니 혈(穴)이야 많건마는 주인(主人)이 독립(獨立)하니 알아볼 이 누 있을고 기중(其中)에 귀(貴)한 것이 자학귀소(紫鶴歸巢) 뿐이로다 학동(鶴洞)이 앞에 있고 삼산(三山)이 뒤에 있다 혈재검와(穴在鉗窩) 중(中)에 평지음사(平地陰砂) 알았으니 만일에 얻어 쓰면 칠대한림(七代翰林) 삼대문과(三代文科) 대대(代代)로 날 것이오 부귀무쌍(富貴無雙) 하리로다 그리저리 구경(求景)하고 마추산(馬樞山)을 넘어서니 전후좌우(前後左右) 회포(回抱)한데 봉(鳳) 하나 생겼구나 견해삼절(乾亥三節) 결인(結姻)하고 해좌(亥坐)에 손파(巽破)로다 대소과(大小科)도 많거니와 사대상서(四代尙書) 이대왕비(二代王妃) 만세(萬世)를 장구(長久)하여 명려일국(名厲一國) 하리로다 이 주인(主人) 알자거든 금산(金山)의 둔괘(遯卦) 자세히 보소 그리로 내려오니 삼계현(森溪縣)이 여기로다 당국(堂局)이 광활(廣闊)하니 인물(人物)이 번성하리 발옥산(鉢玉山) 일기맥(一氣脉)이 자기목성(紫氣木星) 나왔구나 분향(焚香)하고 사배(四拜)하여 그 곳에 들어가니 서남(西南)에 발우(鉢盂) 놓고 노(老)장73이 예불(禮佛)하니 혈성(穴星)이 방정(方正)하니 임해맥(壬亥脉)에 손수(巽水)로다 문과칠인(文科七人) 할 것이오 백자천손(百子千孫) 하오리라 수양산(首陽山) 대과협(大過峽)에 남은 기운 찾아 가니 대독치(大犢峙) 오과협(五過峽)은 무쌍지혈(無雙之穴) 많겠구나 그 산(山)에 올라서니 나주(羅州)가 거기로다 역기(逆氣)로 가는 용(龍)이 때 가마귀 분명(分明)하다 용혈(龍穴)이 취약하니 보자손(保子孫) 뿐이로다 신무결인(辛戌結姻) 기두(起頭)하고 용진산(勇珍山)이 생겼구나

축간(丑艮)으로 기복(起伏)하니 진룡정혈(眞龍正穴) 이것이라 쌍귀추성(雙鬼樞星) 세운 곳에 곡척(曲尺) 기계 정녕(丁寧)하다 용두(龍頭)의 혈(穴)이 나니 횡량안(橫梁案)이 다정(多情)하다 자손복록(子孫福祿) 많거니와 부귀(富貴)는 전혀 없다 노서하전(老鼠下田) 수다혈(數多穴)은 수도산(水土山)에 기제괘(既濟卦)라 낙월치(落月峙) 과협처(過峽處)에 반월형(半月形)이 기묘(奇妙)하다 혈후(穴后)의 천재토성(天財土星) 어느 명안(明眼) 알아 볼고 용지팔년(用之八年) 초발(初發)하여 부귀겸전(富貴兼全) 하리로다 해입수(亥入首) 견해혈(乾亥穴)은 당문수(當門水)가 원건(遠乾)하니 장손(長孫)은 흠(欠) 없으나 중말(中末)에 초패(初敗) 보리 간행(良行) 팔절하(八節下)에 선인형체(仙人形體) 특립(特立)하니 이것 이 주인(主人)인가 남의 처사 하는 구나 경태맥(庚兌脉)에 장군형(將軍形)은 간수(艮水)가 귀을(歸乙) 하였도다 문과칠인(文科七人) 날 것이오 수월동(水月洞) 넘어가니 상하혈(上下穴)이 또 있구나 자손(子孫)이 많이 나고 백대향화(百代香火) 부절(不絕)하리 주인형체(主人形體) 살펴보니 수화성(水火姓)이 되리로다 대(大) 중의 대간룡맥(大幹龍脉)은 이십이절(二十二節) 웅위하니 대혈(大穴) 나는 근본(根本)이라 그 뒤라서 분별하고 걸음을 바빠하여 수리(數里)를 내려가니 화개금성(華蓋金星) 차린 후(后)에 만월괘서(滿月掛西) 차렸구나 혈전(穴前)에 올라서서 전후좌우(前後左右) 살펴보니 칠성봉(七星峰) 삼태안(三台案)에 금수병장(錦繡屏帳) 둘렀으니 문천무만(文千武萬) 십대상(十代相)과 칠대왕비(七代王妃) 만종록(萬鍾祿)은 적선적덕(積善積德) 아니하고 저마다 얻을소냐 성명좌파(姓名坐破) 헤아리니 수목산(水木山)이 감괘(坎卦)로다 혈성(穴星)이 원후(圓厚)하니 상하분별(上下分別) 어려워라 유중(乳中)의 미와(微窩) 보소 용지오년(用之五年) 속발(速發)하리 삼십구대(三十九代) 갈 것이니 종사천고(蠡斯千古)74부러워 할가 견해남록(乾亥南麓) 신무협(辛戌峽)에 단봉형세(丹鳳形勢) 제일(第一)이라 혈후(穴后)에 천륜토성(天輪土星) 알아보기 어려워라 자연관성(自然官星) 안(案)이 되니 만세영화(萬世榮華) 하리로다

겸(鉗) 속의 와(窩)가 되니 청사황토(靑沙黃土) 나리로다 이 산(山) 주인(主人) 그 누구런고 수화성(水火姓)의 땅이로다 장삼을 펼쳐입고 복룡상정(伏龍上頂) 올라가니 어병장막(御屏帳幕) 드리운 밑에 혈

(穴) 하나 묻혔구나 전안(前案)이 광활(廣闊)하여 수리(數里)를 열었으니 화성(火姓)이 주인(主人)이라 그 외(外) 사람 쓸 데 없다 좌(坐) 하나 그릇하면 삼대(三代) 가기 어려우리 죽장(竹杖)으로 가르치며 남록(南麓)으로 굽어보니 주인(主人) 없이 묻힌 혈(穴)이 야담75이 또 있구나 세속(世俗) 사람 눈 있거든 이 혈(穴) 찾아 쓰게 되면 만자천손(萬子千孫) 대소과(大小科)는 대불핍절(代不貲絶) 하리로다 북(北)으로 돌아보니 다소간(多少間)에 있는 것이 장중(帳中) 속에 들었으니 수성(水姓)이 지키리라 용(龍)과 맥(脉)이 웅위하니 평지(平地)로 내려가니 별반기상(別般氣像) 있기에 그 아래로 내려서니 황룡(黃龍) 부주(負舟)하고 자취 없이 숨었으니 아마도 이 한 혈(穴)이 기기묘묘(奇奇妙妙) 하겠구나 대강(大江)은 앞에 있고 큰 길은 뒤에 있다 간행이절(艮行二節) 해이절(亥二節)에 을수(乙水)가 귀미임좌(歸未壬坐)로다 손신간병(巽辛艮丙) 상대(相對)하며 견해자오(乾亥子午) 상봉(相逢)하니 용두봉(龍頭峯) 수구(水口) 맥이 주산(珠山)이 완연(完然)하구나 혈성(穴星)이 원후(圓厚)하여 천륜선태(天綸仙態) 돌렸으니 오척칠재(五尺七才) 파고들면 석좌중(石坐中)의 쌍리(雙鯉)로다 상(傷)치 말고 쓰게 되면 육십팔장(六十八將) 장원(長遠)하리 혈(穴)을 보고 주인(主人) 보니 금토성(金土姓)이 아니런가 금성산하(錦城山下) 행주형(行舟形)은 사백여년(四百餘年) 왕도(王都)로다 남(南)으로 내려가니 쌍룡합금(雙龍合衿) 형체(形體) 좋다 태봉(台峰)은 좌(左)에 있고 반월(半月)은 우(右)에 있다 감계행맥(坎癸行脉) 임해맥(壬亥脉)에 해좌사향(亥坐巳向) 손파(巽破)로다 삼성오현(三聖五賢) 오대한림(五代翰林) 장상(將相)이 연출(連出)하리 칠대(七代)를 지나가면 종묘배향(宗廟配享) 하겠구나 주인형세(主人形勢) 헤아리니 목복성(木卜姓)이 대발(大發)하리

그 위에 올라서니 음양택(陰陽宅)이 구길(俱吉)하다 그 옆에 늙은 용(龍)이 여의주(如意珠)를 다투는데 경태(庚兌)로 발족(發足)하여 임해(壬亥)로 머리 지며 경신(庚辛)으로 어대(魚袋) 놓고 경수(庚水)가 귀갑(歸甲)하니 백자천손(百子千孫) 부귀만화(富貴萬華) 영세무궁(永世無窮) 하리로다 오척삼촌(五尺三寸) 파게 되면 오룡보검(五龍寶劍) 있겠구나 부디부디 조심하여 상(像)치 말아라 제산봉하(第山峰下) 십이절(十二節)에 음양택(陰陽宅)이 다 있구나 대소과(大小科) 비록하나 성패다단(成敗多端) 보기 싫다 그리저리 구경(求景)하니 서북산수(西北山水) 절승(絶勝)하다 행주형(行舟形)은 천기(天基)되고 옆진 사자(獅子) 있겠구나 비봉(飛鳳)은 집을 찾고 호마(胡馬)는 춤을 춘다 진손사체(辰巽士體) 미돌형(微突形)이 이불산(山)이 또 있구나 대소과제(大小科第) 흔히 나고 자손천억(子孫千億) 부귀(富貴)하리 백룡산(白龍山) 올라서니 팔대혈(八大穴)이 생겼구나 아독고모(兒犢顧母) 백학전익(白鶴展羽) 그 중에 더욱 좋다 임강맥(壬坎脉) 을진수(乙辰水)에 장군대좌(將軍大坐) 거기로다 안산(案山)이 중첩(重疊)하니 수구관쇄(水口關鎖) 하였으니 종사천고(蟲斯千古) 하려니와 식록만종(食祿萬鍾) 어려울까 오척오촌(五尺五寸) 파게 되면 홍분금사(紅粉金沙) 청기(靑器)로다 주인봉(主人峰)을 자세히 보니 수토성(水土姓)이 지키리라 산맥(山脉)이 청수(淸秀)하다 북룡(北龍)재를 넘어서니 주룡임강(主龍壬坎) 경태회두(庚兌回頭) 칠사기(七四器)는 천기(天器)로니 목성(木姓)은 음행(淫行)하고 화성(火姓)은 발흥(發興)하여 용사취회(龍巳聚會) 부귀혈(富貴穴)은 목포(木浦) 가에 생겼구나 주인형체(主人形體) 건괘(乾卦) 되니 서백성(徐白姓)은 대발(大發)하리 금성산(錦城山) 전후좌우(前後左右)에 음양택(陰陽宅)이 무수(無數)로다 갑묘맥(甲卯脉) 경태좌(庚兌坐)에 간수귀을(艮水歸乙) 정녕(丁寧)하다 먼저는 우치(牛峙) 찾고 후(后)에는 축령(丑峯) 보소 손신(巽辛)은 상대(相對)하고 간병(艮丙)은 상망(相望)이라 복룡(伏龍)은 축(丑)에 있고 청호(靑虎)는 정(丁)에 있다 사척하(四尺下) 삼색토(三色土)에 생물(生物) 거북 날 것이오 상(傷)치 말고 쓰게 되면 삼공도백(三公道伯) 어려울까 사십자(四十字) 결록중(訣錄中)에 금토성(金土姓)이 주인(主人)이라 사욕(私欲)을 멀리 하면 보기도 쉬우리라 그 재를 넘어서니 노봉귀소(老鳳歸巢)

더욱 좋다 혈재상취(穴在上聚) 미와처(微窩處)라 간좌(艮坐)에 무파(戊破)로다 을진방(乙辰方)이 공허(空虛)하니 초년패(初年敗)는 비록하나 삼십팔대(三十八代) 지낸 후(后)에 자손복록(子孫福祿) 연대(連代)하리 서북향(西北向)에 수다혈(數多穴)을 낱낱이 말하자 하니 내 말이 허사(虛事)될가 세상 입이 가외(可畏)로다 그 외(外)의 무흠대지(無欠大地) 용혈도(龍穴圖)에 있느니라 죽장(竹杖)으로 재촉하여 함평지경(咸平地境) 넘어서니 달는 사심 너는 어이 용천(龍泉)을 앞에 두고 간맥(艮脉) 십이절(十二節)의 혈성(穴星)이 원후(圓厚)하여 천와(淺窩)로 생겼으니 음사합금(陰砂合衿) 분명(分明)하다 혈전(穴前)이 비습(卑濕)하니 알기가 어려워라 천문(天門)의 금성형체(金星形体) 당국수(當局水)가 정(丁)에 가니 만일 찾아 쓴다 하면 백자천손(百子千孫) 장구(長久)하리 반로(半路)로 수리허(數里許)에 산형(山形)이 승복(勝復)한데 좌우(左右)가 만포(灣包)76하니 음택(陰宅) 기묘하다 목성(木姓)의 백년 후에 화성(火姓)이 주장(主張)하리 옥녀봉(玉女峰)을 바라보고 능름히 걸어가니 산선수주(山船水走)77하는 곳에 수성정신(水星精神) 수려하다 삼강(三綱)과 팔조목(八條目)은 여자에게 부당하다 여필종부(女必從夫) 뜻을 알아 운선(雲仙)을 찾으려고 비녀를 빼어 잡고 흥연(欣然)히 내려오니 아름다운 저 태도는 장부 마음 호탕하나 거문고 놓인 곳에 노래 소리 나는 곳에 걸음을 바빠하여 혈전(穴前)에 들어서서 옥소안(玉梳案)을 찾으려고 좌우로 둘러보니 고매리와 대학평(大學坪)은 상하로 벌려 있다 만에 하나 그러치면 대대음행(代代淫行) 나겠구나 이 산 주인을 찾자하니 수화산(水火山)이 태괘(泰卦)로다 문과삼인(文科三人) 날 것이요 대부자손(大富子孫) 나리로다 갑산남(甲山南) 십오리(十五里)에 팔대혈(八大穴)이 또 있구나 주인을 찾아보니 수화성(水火姓)이 지키리라 문과삼인(文科三人) 날 것이요 백자천손(百子千孫) 부귀(富貴)하리 그 아래 어옹수조(漁翁垂釣)78 혈재구중(穴在鉤中)79 하였구나 이를 찾아 쓴다 하면 원발부귀(遠發富貴)하리로다 쌍백동(雙栢洞) 찾아갈 제 노상(路上)에 배례(拜禮)하고 십여리(十餘里)를 들어가니 애설강(哀說講)80을 하는구나 중들이 모아 서서 이승을 위로 하니 나만한 저 노승이 가사를 다 벌리고 염주만 손에 들고 이리저리 배회(徘徊)한다 두량이 흰칠하고 정신이 씩씩하다 만일에 찾아 쓴다 하면 문천무만(文千武萬) 대대(代代) 하리 주인 성명 보려거든 토산(土山)의 차괘(此卦) 해득(解得) 하소 주인 보려거든 낱낱이 말할소냐 그날로 길을 떠나 무안(務安)으로 작로(作路)하니 산화수명(山畫水明) 하는 곳에 다소혈(多少穴) 없을소냐 태봉하(台峰下)의 복호형(伏虎形)은 면견안(眠犬案)이 분명하다 용호사포(龍虎四抱) 수구상(水口上)의 혈재전중(穴在田中) 사암개(四巖開)를 공부하는 지사(地師)야 재작(裁作)하기 어려워라 그외의 십이혈(十二穴)은 그 뒤라서 알아볼까 삼수동하(三水洞下) 초과협(初過峽)의 구실(九實)재가 생겼구나 그 아래 장군형(將軍形)은 문천무만(文千武萬) 십대(十代)로다 이 혈(穴)을 찾았거든 투구바위 물어 보소 사십삼절(四十三節) 건해맥(乾亥脉)의 승달산(僧達山)이 특립(特立)하니 금수병장(錦繡屏帳) 돌렸는데 우리 스승 계시도다 당국(堂局)이 평순(平順)하고 규모(規模)가 광대(廣大)하니 제좌기상(帝座氣像) 높은 곳에 산수회동(山水會同)하였구나 천장지비(天藏地秘)하온 혈(穴)을 저마다 구경하리 백천(百川)이 회조(會朝)81하고 만산(萬山)이 폭주(輻輳)하니 갑산정기(甲山精氣) 매운 곳에 설법 가사 벌였으니 아름다운 저 안산(案山)의 열두 상자 분명하다 발우(鉢盂)대82는 동에 있고 운암(雲岩)은 남에 있다. 저 노장(老長)의 거동 보소 백팔염주(百八念珠) 손에 쥐고 칠십 가사(加裘) 떨쳐입고 모든 제자(弟子) 강(講) 받으니 그 중의 늙은 중이 스승에게 문안(問安)할 새 염주 하나 내려져서 수구원봉(水口圓峰) 되었구나 간태금성(艮兌金星) 충천(沖天)83한데 혈재방원(穴在方圓) 개점처(蓋粘處)라 사륜두석(四輪斗石) 뒤에 있고 금어옥대(金魚玉帶) 아래 있다. 백팔연화(八百煙花)84 되어 있고 삼천분대(三千粉黛) 모여 든다 건곤간손(乾坤艮巽) 특립(特立)하니 왕자사부(王子師傅) 흔히 나고 병정손신(丙丁巽辛) 높았으

니 장원급제(壯元及第) 대대 하리 호호산(葫蘆山) 나타나니 여작왕비(女作王妃) 할 것이오 운증귀지(雲蒸貴地)하였으니 응천상(應天上)의 삼광(三光)⁸⁵이라 토불토이작금(土不土而作金)⁸⁶하니 현목혹심(眩目惑心)되오리라 북신천주(北辰天柱)⁸⁷ 높았으니 먹우주지무궁(覓宇宙之無窮)이라 태맹한문(鮑攄捍門)⁸⁸ 널렸으니 명진타방(名振他邦)하리로다 교쇄직결(交鎖直結)하는 양은 사자(四字)가 分明하다 회천명(回天命) 개조화(改造化)는 귀신(鬼神)의 도움이라 금강백리(錦江百里) 두른 물이 어관대진(魚貫大陣)되었구나 성현(聖賢)은 야담이오 장상(將相)은 대대 나리 이후 자손 천억만세(千億萬世) 만세장구(萬世長久)하리 이 산 운로(運路) 헤아리니 구십팔대(九十八代) 향화(香火)⁸⁹하리 주인 나서 찾는다면 일야간(一夜間)의 영장처(永葬處)라 칠척하(七尺下) 괴이석(怪異石)은 귀신도 도우리라 가기를 잊었더니 날이 이미 저물거늘 걸음을 바빠하여 죽전(竹田)으로 내려오니 단구(丹邱)⁹⁰ 아래 나온 봉(鳳)이 집을 찾아 돌아든다 오동지(梧桐枝) 있는 곳에 호흥봉(護興峯)이 다정하다 마디마디 기복(起伏)하여 축인(丑寅)으로 맥(脉)이 나니 혈후(穴后)의 연단석(鍊丹石)은 태극형체(太極形体) 분명하다 구침장구(毬簷葬口) 분명하고 평지음사(平地陰砂) 사포(四抱)하니 건입수(乾入首)⁹¹ 당문수(當門水)는 삼공도백(三公道伯) 대대 나리 육척이촌(六尺二寸) 파고들면

오색황토(五色黃土) 나겠구나 용지팔년(用之八年) 초발(初發)하니 그것이 더욱 좋다 산맥(山脉)이 수려(秀麗)하고 수세(水勢)가 명랑(明朗)하니 기기묘묘(奇奇妙妙) 생겼으니 호남대지(湖南大地) 되오리라 안산상(案山上) 서구성(瑞九星) 조양(朝陽)이 정녕(丁寧)하니 문천무만(文千武萬) 십대한림(十代翰林) 헛말이 아니로다 주인봉(主人峯)을 찾아보니 수화성(水火姓) 지키리라 간축봉(艮丑峰)이 높았으니 축생발음(丑生發陰) 쉬우리라 주인형체(主人形体) 문필(文筆)이라 구인산(九仞山)이 안(案)이로다 천륜(天輪)⁹² 진 데 모르거든 이런 혈(穴)을 어이 알리 혈전(穴前)의 패인 돌이 사금대(四金帶)인 줄 모르리라 어찌하여 이 큰 혈(穴)이 불원간에 생겼구나 성명거지(姓名居地) 운로(運路) 보니 목화산(木火山)이 가인괘(家人卦)라 신세(身勢) 타령 잠깐 하고 수월동(水月洞)을 넘어가니 구름 속에 묻힌 혈(穴)을 세속(世俗) 사람 알아 볼까 이 산 운세 아느니 만자천손(萬子千孫) 누대부귀(累代富貴) 집집마다 할 것이오 사람마다 받으리라 간팔절(艮八節) 계입수(癸入首)의 을수귀미(乙水歸未) 임좌(壬坐)로다 그리로 내려오니 팔십노옹(八十老翁) 발가는 데 어떠한 계집사람 점심 이고 돌아서니 시장도 하거니와 갈한증⁹³이 나는구나 할 수가 전혀 없어 노옹(老翁) 보고 사래⁹⁴하니 나를 맞아 상좌(上坐)하고 음식(飲食)을 권하거늘 그 길로 내려와서 그 노옹(老翁)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와서 노서하전(老鼠下田) 가리키니 당년(當年)에 발복(發福)하여 삼대부귀(三代富貴)하오리라 그 길로 내려와서 옥녀산발(玉女散髮) 구경하고 서남(西南)으로 건너가서 다소명혈(多少名穴) 다 본 후에 구봉(狗峯)을 넘어서니 맹호도강(猛虎渡江)하는구나 태산(泰山)이 준울(峻鬱)한데 대수(大水)가 충살(沖殺)하니 이것이 귀격(貴格)이라 속발장원(速發長遠)하겠구나 만일에 그르치면 당대폭망(當代暴亡)하리로다 자세히 이르노니 혈재평지(穴在平地) 무인처(無人處)라⁹⁵

그리로 돌아서니 어옹수조(漁翁垂釣) 있겠구나 혈재구중(穴在鉤中) 하였으니 알아볼 이 없으리라 두루다 구경하고 동창(東倉)으로 내려오니 심신(心神)이 산란(散亂)커늘 괘(卦) 얻어 해득(解得)하니 칠십칠년(七十七年) 우리 노친(老親) 병환이 위중커늘 그 날로 내려가서 불효(不孝)를 못 면하고 천붕지통(天崩地痛)⁹⁶한 후에 비봉포란(飛鳳抱卵) 재혈(裁穴)하니 석중북혈(石中北穴) 이것이라 전지무궁(傳之無窮) 바랐더니 하늘이 미워하고 귀신(鬼神)이 작해(作害)하여 삼년(三年)을 못 지내어 파상⁹⁷지물(破傷之物) 되단 말가 절통하고 절통하다 운수라 어이할고 어이할고 어와 벗님네야 길지(吉地)를 얻을진대 아는 것도 쓸 데 없고 순천적덕(順天積德)⁹⁸ 하자스라 그 후는 할 수 없어 촌후(村后)에 안장(安葬)

하고 삼년(三年)을 지낸 후에 광양운산(光陽雲山)99 들어가서 수간암자(數間庵子) 지어내어 이름을 옥룡사(玉龍寺)100라 사문(寺門) 밖에 낮게 앉고 와유강산(臥遊江山)하리로다 어와 이내 팔자 어이 그리 기박하고 하늘이 나를 내니 후박(厚薄)이 없건마는 어찌하여 내 신수가 그다지 박복(薄福)하고 평생(平生)을 돌아보니 적덕악(積德惡)101한 일 없었으니 사람으로 생겨나서 운수 어이 그러한고 가슴이 답답하여 물을 곳이 전혀 없다 이치라 하는 것이 화(禍)와 복(福) 두 가지라 공자(孔子) 같은 대성인(大聖人)도 묘 못 쓰면 멸망하고 고수(鼓叟)102 같은 악한 이도 묘 잘 쓰면 순(舜)을 나니 구하기도 어렵지만 아니 구하기 어렵도다 길흉화복(吉凶禍福) 두 가지를 부디부디 조심하소 내 마음의 병된 것이 사욕(私欲)103 밖에 다시 없네 사욕(私欲)이라 하는 것이 망실패가(亡身敗家)하리로다 어와 세상사람 내 말을 자세 들소 위친구산(爲親求山) 하는 날에 부귀(富貴)를 생각 말며 허욕(虛欲)104을 நி지말고 체백안녕(體魄安寧) 생각하여

춘하추동(春夏秋冬) 사시 없이 심(心)을 들어 구산(求山)하되 잠시라도 잊지 말고 일심전력(一心專力) 하여스라 갈증날 때 물먹기와 주린 때 밥먹기는 사람마다 하거니와 구산(求山)하는 이 마음은 좀체로 못되리라 근래인심(近來人心) 살펴보니 먼저 알으라고 적공 있는 그 사람을 냉소하고 비아냥거리 재물(財物) 두고 자랑한들 철석(鐵石) 같은 이내 심장(心腸) 성지일자(誠之一字) 짐작하지 재물(財物) 보고 휘절할까 하늘이 사람 낼 제 현우(賢愚)가 다를소냐 그르친바 물욕(物欲)105이요 해로운 게 혈기(血氣)로다 사람 알아 보는 법이 혈(穴) 찾기와 같으니라 만일에 그릇 보면 멸문지화(滅門之禍) 나느니라 근래(近來)에 지사(地師)들이 일자부지(一字不知) 무식(無識)으로 용혈사수(龍穴砂水) 길흉론(吉凶論)을 106 담을 치고 앉아서도 혈(穴)을 안다 자랑하며 천금(千金)으로 폐백 받고 안전(安全)하여 구장(求葬)하니 무죄(無罪)한 저 백골(白骨)이 수화염정(水火廉貞) 못 피할 제 그 묘 자손(子孫) 편할소냐 지리(地理)라 하는 것이 무식(無識)하고 쓸 데 없다 이치로 통맥(通脉) 보고 선생(先生)께 눈을 얻어 산수승복(山水勝復)한 연후에 피흉추거(避凶趨去)107하는구나 술객(術客)에게 독한 병이 언적묵적(言賊默賊) 두 가지라 세상사람 눈 있는가 이 두 병을 자세 보소 문필(文筆)이 넉넉하고 마음이 온자하여 선생(先生)께 배운 말을 이목총명(耳目聰明) 얻은 후에 이치로 분석(分釋)하면 살인화(殺人禍)를 면하리라 천지간(天地間) 음양이기(陰陽二氣) 사십구체(四十九體) 변형하고 포태(胞胎)108라 하는 것도 삼십육궁(三十六宮) 각기 달라 분별하기 어렵거든 무식(無識)한 저 소견이 무엇을 안다고 자사명안(自私明眼)109하는구나 옳은 선생(先生) 만난 후에 대소강령(大小綱領) 배워두고 혈지진가(穴之眞假) 사수길흉(砂水吉凶) 날날이 안 연후에

대소운로(大小運路) 짐작하여 흥망성쇠(興亡盛衰) 가려내니 의심이 날로 생겨 무식(無識)을 못 면하여 이런 말이 부끄러라 운수 업는 탓이로다 그러나마 이내 몸이 허욕(虛欲)이 없었으니 보존가호(保存家戶)하련마는 사욕(私欲)이 눈을 덮고 운수가 비색(否塞)110하니 말하여도 쓸 데 없다 호남오십(湖南五十) 수다혈(數多穴)을 다소간 쓰자 하면 쓰기야 쓰겠지만 어찌타 이내 욕심 남의 물건 아느라고 내 물건을 몰라본고 어와 내 일이야 사욕(私欲)이 날 죽인다 허다(許多)한 이내 한(恨)을 세세로 말자하니 정신이 삭막하고 간장이 다 썩겠다 우리 선생(先生) 날 가르칠 제 조선산천(朝鮮山川) 길흉지(吉凶地)와 선악인심(善惡人心) 취택(取擇)하여 주인 찾아 말기려니 팔로(八路)를 두루 보니 혈(穴) 줄 사람 흔히 많다 십조통맥(十條通脉) 벌린 글을 어느 곳에 전할소냐 오대산(五垓山) 백운암(白雲庵)과 지리산(智異山) 청학동(靑鶴洞)이 절절히 기묘(奇妙)하니 이 곳에 감추리라 용혈사수(龍穴砂水) 벌린 글이 알기도 쉽거니와 통맥(通脉)이라 이 한 글은 구전심수(口傳心授)111 아니거든 천만년(千萬年)을 지나가되 알아볼 이 없으리라 일후(日後)의 유식군자(有識君子) 이내 노래 들어보면 알기도 알려니와 용혈도(龍穴

圖) 짐작하리 신세타령 하다가서 분한 중에 이 글 지어 십조(十條) 함께 감추노니 외인부전(外人不傳) 112 부디 하소 그릇 알고 전하면은 양화 받기 쉬우리라 재조(才操) 있는 눈이 있어 혈(穴)을 볼 듯 하건 마는 산가통맥(山家通脉) 모른다면 살인멸망(殺人滅亡) 어이할고 세상(世上)의 혼한 이치 멸만경(滅蠻經)이 이것이라 흑세(惑世)하는 저 사람아 이것으로 혈(穴)을 볼까 고금(古今)의 많은 서책(書冊) 모두 다 찾아 없애잡니 무식(無識)한 세속(世俗) 사람 이 글로 준행하니 업신여기기 없거니와 부디부디 짐작하소 이치라 하는 것이 일이관지(一以貫之)한 후에야 천만산(千萬山)을 다 가 봐야 호리불차(毫釐不差)113하느니라 포태구성(胞胎九星)114 두 가지가 허실(虛實)이 상잡(相雜)하되 허(虛)한 것을 믿게 되면 멸망하기 잠깐이요 실(實)한 것을 얻게 되면 부중불원(不中不遠)하느니라 구천변수(九天變數) 십이성(十二星)은 탈조화(奪造化)의 묘술(妙術)이라 순으로 보았어도 저마다 알아볼까 택일중(擇日中)의 묘한 법은 삼가오장(三家五將) 이 밖이라 어디가 또 있는가 군부(君父) 밖에 못 하느니 부디부디 조심하여 명심불망(銘心不忘)하여서라 내 제자(弟子) 삼인 중에 강해재조(江海才操) 절묘하다 너는 잊질 말아 물전외인(勿傳外人)하여서라 연장칠십(年將七十) 늙은 몸이 독거산심(獨居山深)하여 죽장(竹杖)으로 벼를 삼아 남은 산천(山川) 구경하니 산화수명(山畵水明)하는 곳에 해남(海南)이 여기로다 대호변(大湖邊) 해하농주(海蝦弄珠)115 공경안(公卿案)이 위직(威直)하다 오석(烏石)은 곤(坤)에 있고 명천(名泉)은 유(酉)에 있다 병오방(丙午方) 생긴 구슬 강 위에 벌려 있고 도(鳴) 고지에 나는 상서(祥瑞)116 백대향화(百代香火)하오리라 견해룡(乾亥龍) 경입수(庚入首)의 묘수 귀을(卯水歸乙) 분명하다 이 혈(穴)을 찾았거든 분동(粉洞)을 물어 보소 이 산 운로(運路) 살펴보니 화성(火姓)이 주인이라 당악북(棠岳北) 십리허(十里許)에 한 떼 군사 모였구나 사방(四方) 평평한데 와중 돌기(窩中突氣)117 생겼구나 천금사 한 자리에 알아보기 쉬우리라 이 산 주인 보려하니 금수산(金水山)이 손기(巽氣)로다 서태산하(西太山下) 호승예불(胡僧禮佛) 발우안(鉢盂案)이 천기(天基)로다 주인 봉(主人峯)이 목성(木姓)이라 이씨주장(李氏主張)하오리라 동(東)으로 굽어보니 옆드린 범 내려온다 면견안(眠犬案) 견천변(犬川邊)에 혈재평탄(穴在平坦) 석토(石土)로다 전후좌우 둘러 있어 자좌(子坐)에 당문(當門)이라 만일에 얻어 쓰면 부귀겸전(富貴兼全)하오리라 그 외의 수다혈(數多穴)은 용혈도(龍穴圖)에 있느니라 두루 다 구경하고 강진(康津)으로 넘어서니 바닷가의 달는 용(龍)이 오운(五雲)이 영롱(玲瓏)하다 용지십리(龍池十里) 넓은 물이 수대완도(水帶莞島) 118하였구나 혈(穴) 앞에 명천(名泉) 있고 백호(白虎) 밖에 인가(人家) 있다 이 산 형체 자세 보니 해좌(亥坐)의 손파(巽破)로다 목인성(木人姓)이 못 얻으면 최인(崔人)의 땅이로다 용지십년(用之十年) 대발(大發)하여 삼국재상(三國宰相) 나오리라 동이십리(東二十里) 을자맥(乙字脉)의 반월산(半月山)이 더욱 좋다 정성(正星) 밑에 혈(穴)을 맺어 은연이 숨었으니 무흠대지(無欠大地) 이것이라 사람마다 얻을 소냐 이 산 주인 살펴보니 유대후인(留待后人)하는구나 한림(翰林)이 아홉이요 상서(尙書)가 하나로다 이 혈(穴)이 기묘(奇妙)하기로 도식(圖式)을 그려내니 좌득파(坐得破)119 짐작하니 수토산(水土山)의 어괘(漁卦)로다 류이양성(柳李兩姓) 얻었으면 연대문과(連代文科) 부귀(富貴)로다 그 옆에 옆드린 범이 먹을 것이 많구나 을산미맥(乙山未脉) 십리허(十里許)의 오정(午丁)으로 내려와서 손입수(巽入首) 경득계파(庚得癸破) 대전(大川)이 되었구나 만일에 찾는다면 백자천손(百子千孫)하리로다 동으로 건너가니 춤을 추는 저 선인(仙人)은 풍령산(風嶺上) 사인봉하(舍人峰下) 견해십절(乾亥十節) 곤좌(坤坐)로다 이 산 주인 보려하니 금성(金姓)이 완연쿠나 이대(二代)에 발음(發陰)하여 구경팔상(九卿八相) 나오리라 동자십성(童子十星) 누웠거든 혈(穴)인줄 짐작하소 그 아래 내려오니 용마음수(龍馬飲水) 또 있구나 금강일맥(金岡一脉) 저 너머에 월출산(月出山)이 생겼구나 좌각령(左脚峯) 우성산(右星山)의 자좌오향(子

坐午向)120 當門이라 주인이 다정(多情)하고 기복(起伏)이 분명하다 혈락평지(穴落平地) 유두(乳頭)하여
 121 미미음사(微微陰砂) 돌렸으니 만일에 얻어 쓰면 문과칠대(文科七代) 날 것이요
 백자천손(百子千孫) 부귀(富貴)하여 백세영화(百世榮華)하오리라 이 산 주인 자세 보니 목화산(木火山)
 이 이괘(離卦)로다 만일에 얻어 쓰면 불원간(不遠間)에 생겼구나 흥양동두(興陽東頭) 상제봉조(上帝奉朝)
 이것이 기묘하다 혈재구중(穴在鉤中)하여 좌수(左水)가 유동(流東)하니 주인봉(主人峯)이 금성(金星)
 이라 수도산(水土山)이 항괘(恒卦)로다 그 아래로 내려오니 나는 용(龍)이 바다를 보고 연주맥(連珠
 脉)을 의지하여 흠 없이 생겨 있다 대로(大路)는 재전(在前)하고 삼룡호(三龍虎) 중첩(重疊)하니 정칠절
 (丁七節) 병삼절(丙三節)의 오좌(午坐)의 자파(子破)로다 이 산 주인 굽어보니 수화성(水火姓)이 지키
 리라 북으로 오십리(五十里)의 운중미월(雲中微月) 또 있구나 좌장우단(左長右短) 석맥중(石脉中)의 혈
 재봉하(穴在峰下) 분계처(分界處)라 좌우(左右)에 벌린 봉만(峰巒) 명당(明堂)을 둘러서니 누대문과(累
 代文科) 날 것이요 백자천손(百子千孫)하리로다 주인봉(主人峯)을 자세 보니 이씨산(李氏山)이 되오리
 라 양룡쟁주(兩龍爭珠) 복호형(伏虎形)은 봉황대상(鳳凰台上) 용(龍)이로다 구강일분(九江一分) 세사
 맥(細絲脉)의 연주(連珠)는 죽도(竹島)로다 남으로 내려가니 황사출초(黃已出草)122 생겼구나 차산지
 하(此山之下) 삼구상(三邱上)의 향고사(向孤砂)를 혈(穴)을 맺어 미미하게 숨었으니 알아보기 어려워라
 그 아래 내려오니 예불하는 저 노승(老僧)은 화개관령(華蓋冠嶺) 그 사이에 신태(申兌)로 혈(穴)을 맺어
 해수중분(海水中分)하온 곳에 영주수려(瀛州秀麗) 안(案)이 되니 음양택(陰陽宅)이 구길(俱吉)하여 만
 세영화(萬歲榮華)하오리라 이 산 주인 찾자 하니 목산(木山)의 둔괘(遯卦) 정녕하다 북으로 넘어가니
 미인귀성(美人貴星) 뒤에 놓고 축간(丑艮)으로 굴곡(屈曲)하여 삼태(三台)123를 벌였으며 손묘입수(巽
 卯入首) 갑좌원(甲坐原)의 해수(亥水)가 을(乙)로 가니 부용대장(芙蓉大帳) 벌린 곳에 인산(人山)이 수
 구(水口)로다 이 혈(穴)을 얻으면 위고일분(位高一分) 부귀(富貴)하리 주인봉(主人峯)이 토성(土星)이
 라 금산대장(金山大壯) 되었구나
 서(西)로 이십리(二十里)의 비봉귀소(飛鳳歸巢) 또 있구나 경태행룡(庚兌行龍) 임해입수(壬亥入首) 해
 경수(亥庚水)가 귀미(歸未)하니 오척이촌(五尺二寸) 파게 되면 주옥(珠玉) 한 쌍 있을지니 상치 말고 쓰
 게 되면 대대영화(代代榮華)할 것이요 누대한림(累代翰林) 백자천손(百子千孫) 청고부절(淸高不絕)하
 리로다 이 산 주인 살펴보니 유대후인(留待后人)하리로다 그 옆에 자봉포란(紫鳳抱卵)124 태산하(太山
 下) 소수상(小水上)에 해삼절(亥三節) 간작기(艮作氣)의 손방수(巽方水)가 귀미(歸未)하니 백석(白石)
 은 재후(在後)하고 흑석(黑石)은 재전(在前)하니 혈재미와(穴在微窩) 비습처(卑濕處)라125 자손천억
 (子孫千億) 되오리라 해수동남(海水東南) 연소형(鸞巢形)은126갑묘행룡(甲卯行龍) 간토봉(艮土峯)의
 천토봉(天土峯)은 경(庚)에 있고 귀인성(貴人星)은 곤(坤)에 있다. 간입수(艮入首) 정수파(丁水破)의 인
 산수구(人山水口) 호종(護從)하니 안전창고(案前倉庫) 벌렸으니 혈재거석(穴在巨石) 석린하(石磷下)라
 127 오척칠촌(五尺七寸) 파게되면 삼색토중(三色土中) 석좌(石坐) 나리 상치 말고 쓰게 되면 문무병발
 (文武並發)하거니와 팔대상서(八代尙書) 오대각로(五代閣老) 삼대대장(三代大將) 왕비(王妃) 나리 불
 원간 양대혈(兩大穴)이 목성주인(木星主人) 분명하다 영일인(迎日人)이 못 얻으면 화지산(華脂山)의 자
 손이라128 탄식(歎息) 불이(不已)하고 영암(靈巖)으로 넘어가니 동북십리(東北十里) 무공단좌(武公端
 坐) 괘궁안(掛弓案)이 되었구나 문무칠인(文武七人) 날 것이요 위치이품(位至二品)하리로다 주인봉(主
 人峯)을 알려거든 목산항괘(木山恒卦) 자세 보소 월출산하(月出山下) 화람형(花檻形)은 천기(天基)로
 생겼구나 동편의 용마부적(龍馬赴敵) 비거비래(飛去飛來) 낙수중(落水中)에 하좌(蝦坐)가 동에 있고 신
 인(神人)이 춤을 춘다 혈전(穴前)에 올라 앉아 가기를 잊었더니 명량한 저 하늘이 우수(雨水)가 급하거

늘129 갈 바를 전혀 몰라 걸음을 재촉하여 산하(山下)로 내려오니 일간두옥(一間斗屋)130 그 시문(柴門)131의 백발노옹(白髮老翁) 분주(奔走)커늘 그 노옹을 찾아내어 비 피할 일 의논하니 저 노인이 맞아 들어

안방에 앉히고서 석반(夕飯)을 지어주니 음식(飲食)이 소담하고 산채(山菜)가 정결하다 주인성명(主人姓名) 물어보니 신노인(愼老人)이 정녕이라 연장육십(年將六十) 저 노옹이 구무자녀(俱無子女) 해로(偕老)커늘132 마음이 불상(不祥)키로 용사취회(龍巳聚會) 가리키니 용지삼년(用之三年) 초발(初發)하여 백자천손(百子千孫)할 것이니 나이 많고 병이 많길 제양(帝陽)으로 분금(分金)하니 삼일내(三日內)에 상처(喪妻)하고 이십팔일(二十八日) 재취(再娶)하여 삼월내(三月內)에 입태(立胎)하여 연생삼자(連生三子)하리로다 대저라 이 한 법은 구천운로(九天運路) 십이궁(十二宮)을 한 구멍으로 뽑아내어 개생휴수(開生休囚)133 열거시니 탈조화지(奪造化之) 묘술(妙術)이라 저마다 알아 보리 거기서 머무른 지 어언간(於焉間)에 오월(五月)이라 본토(本土)로 가려하니 주인노옹(主人老翁) 만류커늘 지극히 사양하고 구림(鳩林)134으로 다시 오니 구천(九天)에 가신 부모 침소봉영(瞻掃封塋)뿐이로다135 종일토록 통곡하고 마을로 들어가니 촌양(村樣)은 의구하나 인심(人心)은 대변(大變)하여 잠시도 머물기 어려워 바로 내려 가려 하니 외척(外戚)의 한 노인이 지극히 청(請)하거늘 거기 가서 머물면서 보검출감(寶劍出匣) 가르치고 수일(數日)을 지낸 후에 친산수호(親山守護) 부탁하고 청학동(靑鶴洞) 들어가서 선생교훈(先生教訓) 잊지 않고 십조통맥(十條通脉) 이내 노래 석굴(石窟) 속에 넣어두고 동방성쇠(東方盛衰) 아로써서 석문(石門)에 새겼어라 일후(日後)의 이 석문(石門)을 성사겸(成士謙)이 찾으리라 팔로명혈(八路名穴) 도식(圖式) 그려 노래 끝에 붙이느니 동부모(同父母) 형제(兄弟)라도136 그런 곳에 전치 마라 양화(殃禍)는 고사하고 신기누설(神機漏泄) 되느니라 우리나라 인민 되어 정성으로 구산(求山)하면 첫째는 위선(爲先)이요 둘째는 제 일이라137 다른 일은 구하다가 아니 되면 그만이되 구산(求山)이라 이 한 일은 잘못하면 망가(亡家)하리

세상사람 눈 있거든 구산(求山) 함께 힘써 써라 죽은 부모 음덕(陰德)으로 자자손손(子子孫孫) 부귀(富貴)하면 이 아니 좋은 일고 사람마다 힘써 보소 아동방(我東方) 지리강령(地理綱領) 수화(水火)로 전수(傳授)하리 백두산(白頭山) 올라가서 도(道)를 세워 표하고서 마철령(馬鐵嶺) 넘어서서 오대산(五台山)에 내려오니 백운암(白雲庵)의 모든 정기 여천지(與天地)로 해망(偕亡)하니138 장도사(張道士)의 일을 보니 께씩기가 가이 없다 연소한 이 속여서 남의 속을 속이어서 그르친 일 많거니와 이도 또한 운수로 다 전 허물을 갚자 한들 그 사람이 죽었으니 어디 가 말할소냐 다 못될 일이로다 그럭저럭 지나다가 여초목(與草木) 동부(同腐)하세 천지만물(天地萬物) 생긴 후에 사람이 가장 영(靈)하니 음양오행(陰陽五行) 정기(正氣) 받아 현우(賢愚)가 갈렸으니 현자(賢者)는 양성(養性)할 것이요 우자(愚者)는 ∞리(∞利)하오리라

수지장제일

천지(天地)가 신명(神明)하고 악독(嶽瀆)1이 종령(鍾靈)하여2 오청하(五清河)3 갑인동(甲寅冬)에 우리 선생 태어나시니 문필(文筆)도 거룩하고 재주도 탁관(卓冠)하다. 갑진년(甲辰年) 춘정월(春正月)에 나를 보고 사랑하사 심지(心志)를 통한 후에 지리서(地理書) 가르칠 제 십조통맥(十條通脉)4 중한 글을 삼년 만에 전수(傳授)하니 사생(死生) 맹세 큰 행실을 생전(生前)에 잇는다면 명명(明明)한 일월(日月) 아래 철월(鐵鉞)5이 재전(在前)하니 마음을 굳게 가져 선생 말씀 명념(銘念)하니 이목(耳目)이 총명(聰明)하고 정신(精神)이 씩씩하다 삼십 년을 산(山)에 놀아 허다한 명혈(名穴) 구경하니

[각주]

- 1) 문안납배(問安納拜) : 문안인사하며 절을 올림.
- 2) 발행(發行) : 길을 떠남.
- 3) 감중련(坎中連) : 감괘(坎卦)를 부르는 말로 중간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4) 구궁형상(九宮形象) : ‘구궁’은 팔괘의 방위와 그 중간의 방위.
- 5) 바(鉢)리때 : 바리때. 종이 쓰는, 나무로 대접같이 만들어 안팎을 칠한 그릇.
- 6) 가사내복(加裘乃服) : ‘가사(加裘)’는 ‘가사(袈裟)’의 오기. 승려가 장삼 위에,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 밑으로 걸치는 법복.
- 7) 차례(次第) : 차례.
- 8) 백자천손(百子千孫) : 많은 자손.
- 9) 득수(得水) : 묘지에서 보아 산 속에서 나와 산 속으로 흐르는 물의 처음 보이는 지점.
- 10) 황앵탁목(黃鶯啄木) : ‘황앵’은 꾀꼬리. 꾀꼬리가 나무를 쪼아대는 소리.
- 11) 비응방수(飛鷹放手) : 매를 날리며 손을 벌림.
- 12) 행걸식(行乞食) : 걸식을 행함. 음식 따위를 빌어먹는 행위를 함.
- 13) 이삼삭(二三朔) : 이삼 개월.
- 14) 후(后) : 뒤. ‘후(後)’와 통용하여 쓰임.
- 15) 호접(胡蝶) : 나비.
- 16) 반주(反走) : 돌아서 달려감.
- 17) 극난(極難) : 매우 어려움.
- 18) 제일지(第一地) : 가장 좋은 땅.
- 19) 안산(案山) : 풍수설(風水說)에서 집터나 뭇자리의 맞은 편에 있는 산.
- 20) 폭주(輻湊) : ‘복주(輻輳)’와 같은 뜻임. 바퀴살이 바퀴통으로 모이듯이 사물이 한 곳으로 모여듦.
- 21) 두류(逗留) : 머무름.
- 22) 작로(作路) : 미리 길을 정함.
- 23) 오리허(五里許) : 오리쯤. ‘허(許)’는 쯤, 정도를 뜻함.
- 24) 양택(陽宅)²⁴ : 풍수지리에서, 살아 있는 사람의 집터를 이르는 말.
- 25) 오성대발(五姓大發) : 다섯 개의 성(姓)이 크게 일어남.
- 26) 천년향화(千年香火) : 오랫동안 향불을 태우다, 즉 제사를 지낸다는 뜻.
- 27) 과모일대(寡母一代) : 홀로 된 어미.
- 28) 임군(任君) : ‘임금’의 한자식 표현.
- 29) 어언간(於焉間) : 어느새.
- 30) 감괘(坎卦) : 육십사괘 중 29번째 괘.
- 31) 천기(天基) : 천업(天業)의 기초.
- 32) 반조(半朝) : 조정의 반을 차지함. 관료로서의 큰 성공을 말함.
- 33) 환과(鰥寡) : 홀아비와 과부
- 34) 문무겸전(文武兼全) : 문식과 무략을 다 갖추고 있음.
- 35) 속속기주(倏倏起走) : 갑자기.
- 36) 오공형(蜈蚣形) : 지네.

- 37) 녹하(麓下) : 산 기슭 아래.
- 38) 기고병기(旗鼓兵器) : 기고와 병기. ‘기고’는 싸움터에서 쓰이는 깃발과 북.
- 39) 옥녀무수(玉女舞袖) : 춤추는 사람의 옷소매. 또는 춤 추는 사람.
- 40) 십구인(十九人) : 열에 아홉 사람.
- 41) 근시(近侍) : 임금을 가까이서 모시는 신하.
- 42) 정남자손(丁男子孫) : 나이가 젊고 기운이 좋은 남자.
- 43) 조년(早年) : 젊은 나이.
- 44) 자동류남(自東流南) : 동쪽에서 남쪽으로 흐름.
- 45) 탁립(卓立) : 여럿 가운데서 우뚝하게 서 있음.
- 46) 혈식일인(血食一人) : 피 묻은 산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낸 데서, ‘나라의 의식(儀式)으로 제사(祭祀)를 지냄’을 이르는 말.
- 47) 재조(才操) : 재주.
- 48) 복천(福川) : 화순 동북(同福)의 옛 지명.
- 49) 대폐성(大吠聲) : 크게 짖는 소리.
- 50) 흰흰(喧喧)하니 : 시끄러우니.
- 51) 흠탄(歎嘆) : 부러워하는 탄성.
- 52) 양택(陽宅) : 마을이나 고을의 터.
- 53) 음택(陰宅) : 무덤.
- 54) 구조(俱照) : 두루 비침.
- 55) 죽장마혜(竹杖麻鞋) : 대 지팡이와 마로 엮은 신발. 곧 간편한 옷차림.
- 56) 남(南) : 남 [他] 의 차자(借字)식 표기.
- 57) 무가지보(無價之寶) : 가치를 지불할 수 없는 귀한 보물.
- 58) 독산(獨山) : 독산(獨山). ‘獨’은 ‘獨’의 속자.
- 59) (危急脊薄) : 위급척박(危急瘠薄).
- 60) 촌보간(寸步間) : 몇 발자국 걸음 사이.
- 61) 반등산(半登山) : 장성의 방등산(方等山)의 다른 표기인듯 함.
- 62) 배부(配夫) : 배필(配匹)이 되는 지아비
- 63) 무후(無后) : 후사(後嗣)가 없음.
- 64) 질마재 :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에 있는 마을인 선운리의 속칭. 그 모양이 길마(수레를 끌 때 말이나 소 등에 안장같이 엮는 제구로 ‘질마’는 구개음화가 안된 상태)와 같은 형국으로 된 고개와 같다 하여 ‘질마재’로 부르는 것임.
- 65) 적실 : 적실(的實). 틀림없이 확실함.
- 66) 천장지비(天藏地秘) : 하늘과 땅이 감춰 세상에 드러나지 않음.
- 67) 숙조투림(宿鳥投林) : 잘 새가 숲속에 듦.
- 68) 연면(連綿) : 잇달아 있음.
- 69) 일목일각(一目一脚) : 외눈박이와 외다리
- 70) 이이(而已)로다. : 뿐이로다.
- 71) 만종록(萬鍾祿) : 매우 많은 봉록(俸祿).

- 72) 원생(猿猩) : 원숭이.
- 73) 노(老)장 : ‘老長’ 혹은 ‘老丈’. 늙은 중을 높여 부르는 말.
- 74) 종사천고(蠡斯千古) : ‘종사’는 메뚜기 혹은 여치. 여치가 한 번에 99개의 알을 낳으므로 부부가 화합하여 자손이 번창함을 비유. 오래도록 자손이 번창한다는 뜻임.
- 75) 야답 : 야답(野畚). 들에 있는 논.
- 76) 만포(灣包) : 바다의 오목한 물굽이처럼 감쌌.
- 77) 산선수주(山船水走) : 산이 배처럼 서 있고 물이 흘러 달려감
- 78) 어옹수조(漁翁垂釣) : 고기 잡는 늙은이가 낚시를 드리움
- 79) 혈재구중(穴在鉤中) : 혈이 낚시 바늘 속에 있음.
- 80) 애설강(哀說講) : 죽은 이를 위해 슬픔을 달래는 강을 베풀.
- 81) 회조(會朝) : 제후가 모여 천자를 알현하거나 다른 제후와 만남.
- 82) 발우(鉢盂)대 : 바리. 바리때.
- 83) 충천(冲天) : 하늘 높이 솟음. 또는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이.
- 84) 연화(煙花) : 연화(煙花)는 기녀이고, 분대(粉黛)는 아름답게 단장한 미인을 가리킨다.
- 85) 삼광(三光) : 해와 달과 별.
- 86) 토불토이작금(土不土而作金)하니 : 흙이 흙이 아니라 금을 만들어 내니.
- 87) 북신천주(北辰天柱) : 북신은 북극성. 북극성이 하늘이 무너지지 않도록 괴고 있는 기둥이라는 뜻에서 쓴 말.
- 88) 태맹한문(鮐黿捍門) : 늙은 맹꽂이가 문을 막고 있는 형상.
- 89) 향화(香火) : 향불. 제사.
- 90) 단구(丹邱) : 붉은 언덕. 신선이 산다는 가상의 곳.
- 91) 건입수(乾入首) : 풍수에서 용의 머리가 혈로 들어간다는 뜻으로, 내룡(來龍)의 말절(末節)이 현무정(玄武頂)으로부터 도도룩한 능선을 이루며 혈로 들어가는 부분.
- 92) 천륜(天輪) : 하늘의 수레바퀴. 해.
- 93) 갈한증 : 갈증(渴症)과 한증(寒症).
- 94) 사래 : 손사래.
- 95) 혈재평지(穴在平地) 무인처(無人處)라 : 혈이 평지에 있으되 사람이 없는 곳이라.
- 96) 천붕지통(天崩地痛) : 천붕지통(天崩之痛)의 잘못.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라는 뜻으로, 제왕이나 아버지의 상을 당한 큰 슬픔의 비유.
- 97) 파상 : 깨어지고 상함.
- 98) 순천적덕(順天積德) : 하늘에 순응하여 덕을 쌓음.
- 99) 광양운산(光陽雲山) : 광양(光陽)의 백운산(白雲山).
- 100) 옥룡사(玉龍寺) : 전남 광양시 옥룡면 백운산 자락에 있었던, 도선국사가 주석하였다는 절.
- 101) 적덕악(積德惡) : 적악덕(積惡德)의 잘못된 뜻함.
- 102) 고수(鼓叟) : 고수(瞽瞍). 중국 순(舜) 임금의 아버지. 매우 완악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 103) 사욕(私欲) : 사욕(私慾)의 오기.
- 104) 허욕(虛欲) : 허욕(虛慾)의 오기.
- 105) 물욕(物欲) : 물욕(物慾)의 오기.

- 106) 용혈사수(龍穴砂水) 길흉론(吉凶論) : 풍수에서 간룡(看龍), 정혈(定穴), 장풍(藏風), 득수(得水)의 길흉에 관한 이론.
- 107) 피흉추거(避凶趨去) : 피흉이거(避凶移去). 흉함을 피해 옮겨 감.
- 108) 포태(胞胎) : 포(胞)·태(胎)·양(養)·생(生)·욕(浴)·대(帶)·관(冠)·왕(旺)·쇠(衰)·병(病)·사(死)·장(藏)의 12성신. 이를 보고 득파(得破)의 길흉을 판별하는데, 생·왕·관·대의 4길성은 부귀성(富貴星)이며, 나머지 8흉성은 빈천성(貧賤星)이다.
- 109) 자사명안(自私明眼) : 스스로 사사로이 안목을 깨우쳐 밝힘.
- 110) 운수가 비색(否塞) : 운수가 꼭 막힘.
- 111) 구전심수(口傳心授) : 말로 전하고 마음으로 가르친다는 뜻으로, 일상생활을 통하여 몸에 배도록 가르침을 일컫는 말.
- 112) 외인부전(外人不傳) : 바깥 사람에게 전하지 아니함,
- 113) 호리불차(毫釐不差) : 털끝만큼도 틀리지 않음.
- 114) 포태구성(胞胎九星) : 포태법과 구성법. 즉 풍수에서 포태 12신성(神星)과 9성으로 득파(得破)의 길흉을 판별하는 방법.
- 115) 해하농주(海蝦弄珠) : 바닷새우가 구슬을 희롱하는 모양.
- 116) 상서(祥瑞) :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징조.
- 117) 와중돌기(窩中突氣) : 오목하게 들어간 와형혈(窩形穴) 중간에 돌형혈(突形穴)의 기운이 우뚝 솟음. 와와 돌을 겸(鉗), 유(乳)와 더불어 혈형사격(穴形四格)이라 한다.
- 118) 수대완도(水帶莞島) : 바닷물에 섬 완도가 띠처럼 떠 있음.
- 119) 좌득파(坐得破) : 혈(穴)의 중심인 좌(坐)의 득(得)과 파(破). 혈의 양측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수류(水流)의 발원처가 득이고, 수류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곳이 파(또는 水口)이다.
- 120) 자좌오향(子坐午向) : 정북인 자의 위치(坐)에서 정남인 오를 대(向)하는 좌향. 좌향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다.
- 121) 유두(乳頭)하여 : 유두혈(乳頭穴)이 솟아. 유혈(乳穴)은 혈형사격(穴形四格) 중의 하나.
- 122) 황사출초(黃巳出草) : 노란 뱀이 풀숲에서 튀어나오는 형국.
- 123) 삼태(三台) : 삼태성(三台星). 상태성(上台星), 중태성(中台星), 하태성(下台星)의 세 별.
- 124) 자봉포란(紫鳳抱卵) : 자줏빛 봉이 알을 품고있는 형국.
- 125) 혈재미와(穴在微窩) 비습처(卑濕處) : 혈이 미미한 와형에 있으니, 낮고 습한 곳이라.
- 126) 해수동남(海水東南) 연소형(鸞巢形)은 : 바닷물 동남의 제비집 형국은.
- 127) 혈재거석(穴在巨石) 석린하(石磷下)라 : 혈이 큰 바위에 있으니, 돌 틈의 물 아래라
- 128) 영일인(迎日人)이 못 얻으면 화지산(華脂山)의 자손이라 : ‘영일인(迎日人)’은 영일정씨를, ‘화지산(華脂山)의 자손’은 화지산(華池山)에서 발원한 동래정씨(東萊鄭氏)를 말하는 듯함.
- 129) 우수(雨水)가 급하거늘 : 빗방울이 곧 떨어지려고 하거늘.
- 130) 일간두옥(一間斗屋) : 한 칸의 아주 작고 초라한 집.
- 131) 시문(柴門) : 사립문
- 132) 구무자녀(俱無子女) 해로(偕老)커늘 : 자녀가 없이 부인과 함께 늙어가거늘
- 133) 개생휴수(開生休囚) : 미상.
- 134) 구림(鳩林) : 영암의 지명. 도선국사의 고향.

135) 침소봉영(瞻掃封塋)뿐이로다 : 무덤을 우러르며 비로 쓸 뿐이로다.

136) 동부모(同父母) 형제(兄弟)라도 : 부모를 같이 하는 형제라도.

137) 첫째는 위선(爲先)이요 둘째는 제 일이라 : 첫째는 선조를 위함이요, 둘째는 자기의 일이라.

138) 여천지(與天地)로 해망(偕亡)하니 : 천지와 더불어 함께 망하니.

본자료는 행정안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